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金鶴香油

大方針을宣明코 政策實現에邁進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의 現段階와 今後에 發生할諸般의事態에 對應할我不退轉의 大方針은 十一日의 御前會議에서 惶恐하압시게도 聖斷을 奉仰하와 不動不壞의國是로 確立을 보앗는데 이를 機會로急速히 이大方針을具體的으로 推進할것이라는氣運이 大本營과政府間에 一致한意見이되야 이結果 風見書記官長은 十二日午後에 廣田外相、賀屋藏相、杉山陸相을 歷訪하고 大本營과 政府의連絡會議를 開催할件에 對하야 協議를行하고 結局 兩三日中에 連絡會議를開하야 具體的諸政策實現의巨步를 進出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政府는 이連絡會議의結果를 反映하야 近近閣議에서 不動의大方針을 中外에 宣明할帝國政府의聲明을 決定하고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이를 天下에 公表하고 國民에게 向할바를 보이는同時에 事變終局의 目的達成에對한 國民의 重大覺悟를 促進하기로되엿다

長江航行禁止通告로 日英間에新問題發生

英、自由航行權은主張하나 商船엔遡江停止勸告

【倫敦十一日發同盟】上海工部局改組問題로 因하야 英國政府가 神經을 銳敏히 하고잇는 이때 또 揚子江의 內河航行權을 圍繞하고 日英間에 新問題가 發生되려하고잇다 即 在上海英國海軍當局은 最近에 日本海軍參謀로부터 事變以來로 長江航行은 支那軍의 水雷敷設과 軍事行動때문에 危險하게되엿스므로 日本海軍은 今後 外國商船의 長江航行을 一切禁止할方針이라는 通告를 바든것이 十二日의 타임스紙上에 報道되야 벌서 各方面의 注視의的이되고잇다 同紙의 報道하는바에依하면 英國政府로서는 日本이 揚子江航行權에 容喙함은 絶對로 許容할수업스나 實際問題로 艦隊의 一部를 割讓하야 商船의 護衛隊를 編成할수는 업스므로 各船會社에對하야 長江 遡江을 停止하도록 勸告하엿다

【倫敦十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日本海軍이 上海의 英國當局에對하야 支那軍의 水雷敷設과 軍事行動에 鑑하야 今後 外國船舶의 揚子江航行을中止시킨다고 警告한 일로써 揚子江自由航行權妨害라 曲解하고 重要視하고잇는데 十二日에 政府代辯者는 左와가티말하엿다

日本은 英國船舶의 揚子江自由航行權에 干涉할 權利는업다 英國政府는 日本政府에對하야 下江이나 遡江임을 不問하고 揚子江自由航行權을 保持할 意思임을 表示하여두엇다

皇后陛下

大宮御所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께압서는 十三日午後一時三十分에 宮城御出門 大宮御所에 行啓하압시여 皇太后陛下에 御對面、新春의 御人事를하압시고 暫時御團欒을하압신後 同三時四十五分에 御所御出門 宮城에 還啓하압시엿다

南總督參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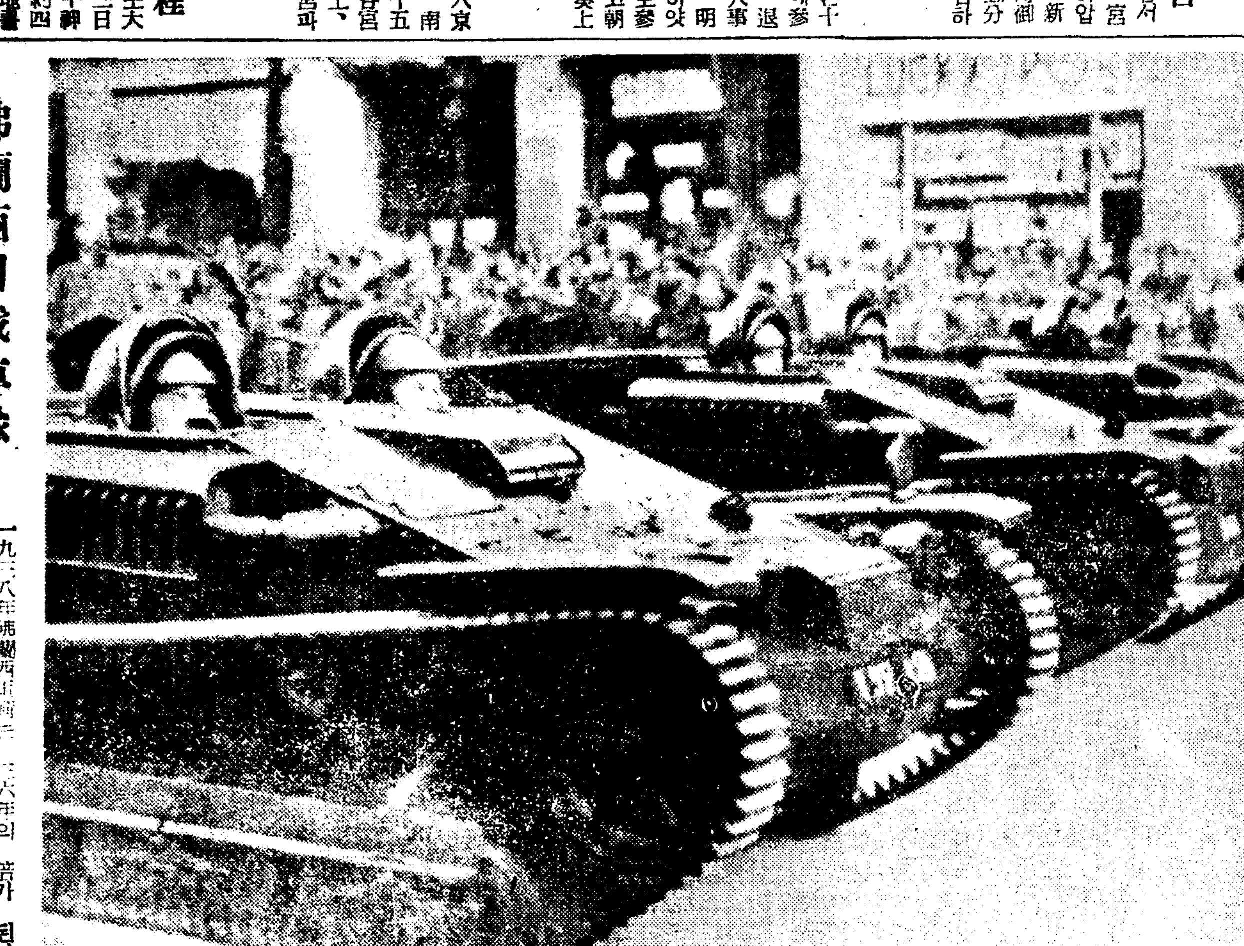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南朝鮮總督은 十三日午前十時三十分에 宮中에參內 天機奉伺의 記帳을하고 退出하야 또各宮家에 伺候御人事言上의 記帳을하고 午後는 明治神宮과 靖國神社를 參拜하얏다 十五日午前中에 正式으로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朝鮮統治狀況에 對하야 委曲奏上하기로되여잇다

總督各宮家에伺候

【東京電話同盟】十二日에 入京하야 鎌倉의 私邸에 드러간 南朝鮮總督은 十三日午前十時十五分에 新橋驛에 到着하야 各宮家에 伺候하야 御人事를 言上、記帳을하고 午後는 明治神宮과 靖國神社에 參拜한다

大谷光暢師 皇軍慰問次登程

【京都電話同盟】東本願寺法主大谷光暢師는 皇軍慰問次 十三日午前九時五十五分京都發 正午神戶出帆의 長城丸으로出發、約四十日에 亘하야 北支滿洲各地를 巡遊하면서 皇軍將士慰問을 行할 豫定이다



佛蘭西의戰車隊!

一九三八年佛蘭西國防費는 三六年의 倍가 된다고 陸相달라듸에氏는 發表하엿다 그리고 佛國下院에서는 昨年全國防費보다도 더만흔 四千六百萬弗의 軍擴費를 壓倒的多數로 可決하엿다

時事解說

香港

香港은 廣東省 南部 廣東灣에 잇는 一小島로 前에는 紅香爐山이라고 부르는 一寒村에 不過하엿스나 阿片戰爭의結果 一八四二年에 英國에 讓渡되엿다。以來 約一世紀間 英國은 非常한 努力과 巨大한投資를 한結果 現在에는 世界의 有數한 大港市를 形成하고 政治上 軍事上으로 大英帝國의 極東 特히 支那制覇의 根據地가 되엿다。

◇

所謂『香港 王領植民地』라는것은 이 香港島以外에 一八六〇年 及一八九八年의 兩次에 亘하야 九十九個年期限附로 讓渡된 對岸의 九龍半島一帶와 그附近의 小島嶼를包括하는新領域을 總括하여 이르는것이다。『王領植民地』香港의 首府빅토리아市에는 英國皇帝가 任命하는 英國人總督이 駐在하고 香港의 總人口約八十五萬中 三十八萬가까이가 이首府에서 살고잇다。그中 約九割以上은 支那人이다。 그리고 都市는 港灣의 施設과 道路、公園等의 整備가 完備한 點으로보아 純英國式近代的都市인同時에 特히 南支에 잇서서의 經濟的、文化的 中心地가 되엿다。

◇

醫科、工科、工藝科를 두고 大部分 支那人學生을 收容하는 有名한 香港大學도 이곳에 잇고 또 이밧게도 官立英國人學校가 四校、官立 支那人學校가 一五校、印度人學校가 一校잇다。

香港은 英國支那艦隊의 根據地이니만큼 堅固한 要塞가構築되여잇고 常備兵으로 一砲兵中隊、一工兵中隊、一裝甲中隊、二機關銃中隊、一步兵中隊가 駐屯軍司令官의 指揮下에 잇다。

◇

南支의 時局이 더욱 緊張하여짐을 따러 香港의 地位는 더욱 重大性을 더하게되야 去四日에는 一九二二年 香港大罷業時에 發令되엿든 戰時緊急令이 復活되고 또 今月中으로 地中海에잇는 英國艦隊의 一部를 香港方面에 增派하고 香港의 航空隊도 擴大하기로 된바 이方面에 잇서서의 事態의 急迫함을 말하는것으로 一般의 注目을 끄을고잇다。(K)

南昌各所를爆擊

【上海十三日發同盟】十三日 午前十一時三十分 艦隊報道部發表=海軍航空隊는 十二日午後에 南昌을 空襲하야 新舊飛行場과 格納庫三棟과 機械學校等을 爆擊하고 또 地上의 敵數機를 爆破하엿다

青島와無電連絡

【青島十三日發同盟】青島市의電報局은 我海軍의 管理에屬하야 青島、佐世保間의 海底電線의破損된 個所의 修理를急히 하고잇는데 同時大連經由의 無電連絡을 十三日부터 日本內地와 滿洲北京天津과의 日本文公衆電報의 發受信事務를開始하엿다 青島電報局의分은 陣容이整備되지못하기때문에 配達치안코 電報局前에受信人氏名을 揭示하야 交付키로되엿다

蘇支兩大使의 更迭된裏面事情

【莫斯科十二日發同盟】駐蘇支那大使將鼎黻氏는 九日莫斯科出發 巴里經由 歸國의途에 올랏는데 目下 莫斯科外交界에서는 將大使의召喚理由에 對하야 여러가지臆測이 되고잇다 하바스通信의報道에依하면 一部에서는 將大使는너무親蘇的은 아니엿슴으로中國共產黨이 國民政府에對하야將大使의 召喚을 要求하엿다고한다 또他方 國民政府는蘇聯政府로부터 充分한援助를 獲得할수업고 特히蘇聯政府가 國內의立場에서 蘇支防守條約締結과가튼 約束履行을 拒絶하엿기때문에 將大使를 召喚하게되엿다고推測하고잇다 何如튼將大使는 親蘇가아니나 蘇聯政府의 對支援助에 懷疑的이엿든것은 事實이므로 將大使는 자조『蘇聯의 激勵에依하야 支那共產黨이 將介石政權을 支持하게됨은 支那로서 고마운일이나 이以上蘇聯政府의 援助는 期待할수업다』고말하엿다한다 一方蘇聯政府가보고모로프駐支大使를 召喚하고新大使루가네오렐스키氏를 任命한것은 意外이엿다고하야 莫斯科外交界에서는 모두놀라고잇다 보고모로프氏는 一九三三年에 大使에 任命되엿다 當時國民政府는同大使가 支那共產黨과 密接한關係가잇다고하야 조와하지안코 蘇聯政府에 對하야 同大使召喚을 要求하려한일까지잇섯스나 日支事變이 勃發하자 보고모로프大使는 蘇聯政府의 積極的援助를 約束하자 國民政府는 突變하야 보고모로프大使의 態度에 隨喜하엿든것이다 그런데 蘇聯政府가 突然보고모로프大使를 召喚하엿스므로 國民政府는 적지안케 唐慌하엿다 這間의 事情에 對하야 支那大使館은 보고모로프大使가 國民政府에 對하야 蘇聯政府의 希望하는 以上의 援助를 約束하엿기때문에 罷免된것으로 생각한다고하나 오렐스키新大使의 任命에도 好感을가지고 新大使도前任者와 同一한政策을 遂行할것으로믿고잇다 現在에잇서서는國民政府는目下 赴任의途에잇는駐蘇支那大使館參事官 余銘氏를任命할뿐으로 아마近近大使館員全員을 更迭할것으로推測된다 그리고大使館의陣容改造와 立法院長孫科의 蘇聯入露等에依하야 今後蘇支關係가 如何히 轉換할지 注目된다

大流店占領

【濟南十三日發同盟】桑田快速部隊는 十一日의 濟寧占領에 沼田部隊와 協力하고 또大運河의 敵을 攻擊하야 단숨에 運河湖沼地帶를 突破하고 敗敵을猛追하야 敵中에深入하야 十二日午前十時四十分에 濟寧北方三粁의 南陽湖西北의 大流店을 占領하얏다 今次의 戰鬪에서 疾風과가티 兗州를 攻略하고 濟寧一帶의 激戰에잇서서는 斷定으로써 寡兵으로써 大運河津浦線에 陣치고잇는 三個師의 敵의策應을 衝하야 敗走케한桑田部隊의 武勳은 赫赫하다

英、地中海及極東危局에對備 南阿迂回交通路强化

'프리타운'에堅固한要塞構築 스運河威脅을考慮코

【倫敦十二日發同盟】英國政府는 極東과 地中海의 危局에對備하야 海軍大擴張計畫을 進行하고잇는데 萬一의 境遇에는 極東의 關門인 스에즈運河의 安全이 威脅될것을 顧慮하고 喜望峰의 迂回交通路 强化를 圖키爲하야 케입타운港과西部阿弗利加、시에라레오네領의 프리타운港에 堅固한 要塞를 構築하기로 決定하고 벌서 工事에 着手하엿다고한다 右에對하야 데일리헤랄드紙는 次와가티 報道하고잇다

英國政府는 萬一의 境遇에 스에즈運河交通의 制肘를 바들것을 想像하고 케입타운、시에라레오네領의 프리타운港을充實한海軍根據地로 하기로決定하고 商船護衛의 任務에當할 巡洋艦이 急速히 燃料補給을 할수잇도록 給油艦의 工事材料가 벌서 프리타운港에 發送되엿다 將來軍은 阿洲土民軍을 包含할터이로 그兵營建築은 目下 進步中이다 海岸一帶는 콘크리트의 防城이 構築될터인데 이에는 新要塞와가티 巨砲가 配置될豫定이다

櫻井部隊青島上陸

【青島十三日發同盟】櫻井部隊長이 指揮하는 陸軍의 精銳는 十三日午前二時에 港外에到着하야 午前七時부터 威風堂堂히 上陸을 開始하엿다

米國大使館 重慶移轉을準備

【紐育十二日發同盟】十二日紐育에到達한 AP漢口電에 依하면 近近支那外交部의 漢口移轉을豫想하고 米國大使館에서는 벌서 重慶移轉의 準備를開始하엿다고 左와가티 報道하고잇다 존슨大使는 大使館員과 支那人使用人을重慶에派遣하엿다 이는 支那外交部의 重慶移轉을豫想하고 重慶에서 米國大使館員의 住居를 準備하기때문이다 但 米國大使館에서는 外交部가 正式으로 移轉하기까지는 移轉지안는다하고잇다 米國海軍最少의 砲艦루손일라號는 大使의重慶行에備하려고 待機하고잇다 一方 米國大使館員은 日本軍의 漢口占領如何에 不拘하고 漢口에 남아잇슬意思는 업다고 表明하고잇다

『에』國合併을承認코 平和機構를再確立?

歐洲政局의動向注目

【倫敦十二日發同盟】來十七日부터 쥬네브에서 開催되는 國際聯盟理事會는 制裁規定의 撤廢에依한 聯盟平和機構의 全般的改造를 策動하야 歐洲外交의 動向에 決定的一步를 進出하지나안는가고 期待되는데 이에 關聯하야 伊太利의 에디오피아 合倂에 關하야 各國의 空氣가 濃厚하게보여 오래동안 頭痛거리가되든『伊太利帝國 承認問題』는 依然히 新進展을 보게되엿다 벌서『오슬로諸國』은 에디오피아 合倂을 法律的으로 承認하는일이 업시 各各 羅馬에 外交使臣을 任命할수잇는 方式에對하야 意見이 一致하엿다고 傳하는데 右方式은 아직 最後的으로 正文으로되여잇지안코 聯盟理事會 開會前에 正式發表를 中止하고잇는 模樣이다 目下 부다페스트에서 開催中인 伊太利、墺太利、匈牙利三國會議가 에디오피아合倂承認問題에 對하야 如何한 動向을 보일는지는 聯盟의 空氣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것으로 注目된다 消息通의 間에서는 에디오피아 合倂承認問題는 아마 理事會에 正式으로 上程討議되지안코 쥬네브에 會集한 各國代表間에 非公式으로 意見의 交換을하야 事實上의 承認에 對하야 諒解的 外交交涉을 할것으로 觀測된다

農村復興次 合作社再建

【北京十二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는 北支各地의 治安回復에伴하야 農村經濟의復興에 主力을集注하야 行政委員會賑濟部를中心으로 各種의 具體的計劃의樹立을急히하고잇는데 特히積極的農村振興策으로 農村合作社運動에 着目하고 河北山西兩省을爲始하야 各地에잇는 合作社의再興과 그指導에 積極的으로進出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只今까지의合作社의多數가 單純한 信用組合에 團落하야 生產方面에 잇서서 欠缺한바가잇섯스므로 今後는農民本位의 組織을完備하야 共同組合의 發達을 促進할方針이다

外人二七〇名 國際參戰志願軍組織

【上海十三日發同盟】抗日戰線에參加하는 外人數는 約三百七十名에 達하엿는데 漢口來電에依하면 此等外國人 志願將校로써 國際參戰志願軍이 組織되어米國『[illegible]』가 司令官에任命되엿다

杉山陸相 風見翰長과要談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十三日午前十一時二十分에 首相官邸에서 風見書記官長과 會見하고 對支國策遂行上의 諸問題에 對하야 여러가지 要談을하엿다

米國建艦案內容

【華盛頓十二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海軍大擴張計畫은 結局 近近議會에보내는 大統領의 特別敎書에 繼續하야 提出된다 뵌슨下院海軍委員長의 建艦法案에依하야 그全貌를 나타나는것으로 多大한興味로써 보고잇는데 下院海軍委員會의 某有力者는 目下 愼重히立案하는 下院建艦案의內容에對하야 十二日에 AP記者에게 左와가티 漏洩하엿다 新建艦法案의 艦種은 全艦種에 亘하야 倫敦海軍條約에서 規定된制限以上에 一律로二割의 噸數增加의權限을附與하려함에잇다 이에要하는 經費로는第一年度에 一億二千五百萬弗을 計上할터이다 그리고 海軍士官의 增員問題도 考慮되고잇다 新建艦計畫에對한 議會方面의空氣는 上下兩院이 다大體로 贊意를 表하고잇서 何時든지 米國은 外國에對抗하야 自國을防衛할準備가될러이다 同時에 國內軍工業에도 非常히 要望된援助를 줄수가잇게 되리라는것이 多數의 意見이다 그리고 下院海軍委員 맥너슨氏는 全國的協調를强調하야 左와가티말하엿다 新艦建造를 各省이 各各分擔하야 建造에 必要한材料를提供하기로되여잇다

八面鋒

英國서는 只今 建造中의 主力艦 五隻外에 다시 五隻을 建造하고、
◇ 航空機도 大擴充을 하야 一九三五年의 二倍로 한다고。
◇ 이리되면 英國 主力艦은 合二十五隻이 되는 셈이오 航空機는 近四千臺가되는 셈。
◇ 이가튼 軍備擴張은 무엇을 招來할것인가。
◇ 今年中으로 官立 女子專門을 創立한다고。
◇ 이리되면 女子醫專과 아울러 今年中 女子專門이 二個나 設立되는 셈。
◇ 女子敎育을 爲하야 萬丈의 氣焰。
◇ 五十萬圓 建設費로 京城에 都賣市場을 設立하기로 作定。
◇ 利害關係는 언제나 相伴하는 法이지만 이왕잇든 南大門市場 小賣商들에겐 大打擊。

蘇、一切의國家와 同數領事를交換

英政府에對하야 此點考慮를促含한結果 蘇聯要求를英容認?

【倫敦十二日發同盟】하바스通信社의 報道에依하면 十二日에英國政府에 對하야『蘇聯政府는蘇聯과 外交關係를가진 一切의國家와 同數의 領事를 交換할方針을 決定하엿다 英國政府도이點을 考慮하야 適當한 處置를하여달라』고 通告하엿다 現在駐英蘇聯領事는 倫敦一個所뿐임에反하야 蘇聯駐箚英國領事館은 레닌그라드、莫斯科의 二個所가 잇서 英國政府는 以上의 蘇聯政府의 要求를 容認하고 레닌그라드駐在領事館을 閉鎖할것으로 觀測된다

一個月猶餘로 諸外國에撤收勸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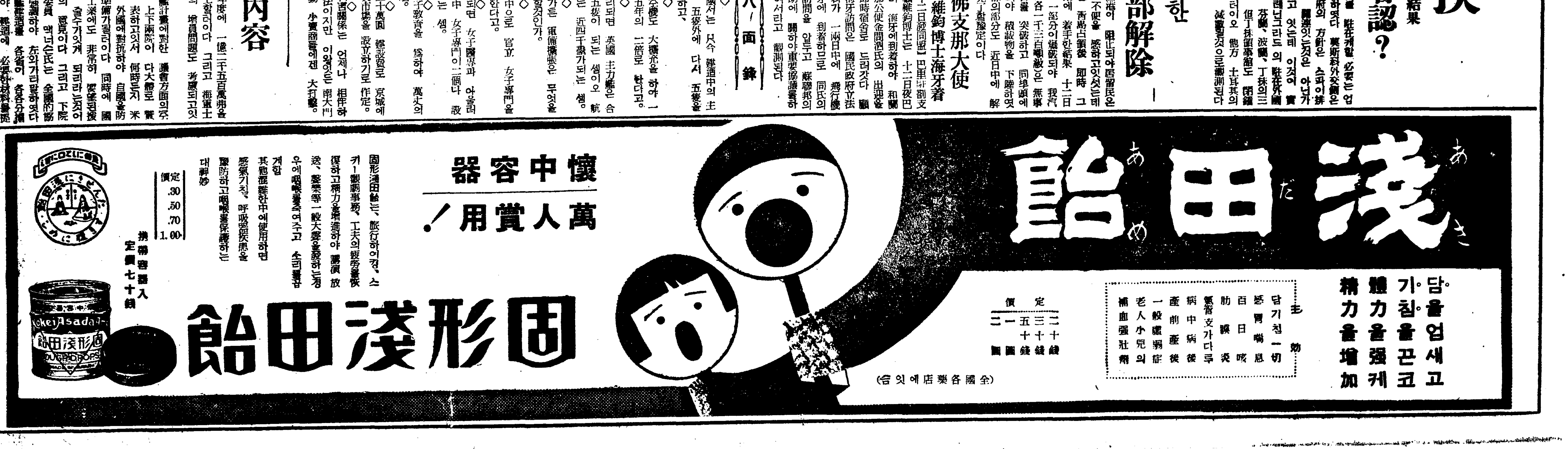
【莫斯科十二日發同盟】蘇聯政府는 領事館同數保有原則을 前提로 벌서 獨伊兩國의 레닌그라드領事館을 閉鎖케하엿는데 AP通信社가 報道하는 外交界의 情報에依하면 今回에 또 外國領事館縮少의 新政策下에 英國、瑞典、諾威、에스토니아、라트뷔아의 諸國에對하야 一個月의猶餘期間을 주어 레닌그라드領事館의 閉鎖를 要求한다고 한다 右에關하야 蘇聯政府當局은 領事館閉鎖는 蘇聯一般的政策으로 蘇聯政府는 領事同數保有의 特別協定을 締結한國家를 除하고 漸次 外國領事館의 閉鎖를 要求할 意向이다 蘇聯邦에는 外國의 領事를 駐在케할 必要는 업다고 말하엿다 莫斯科外交側은 스파이排除工作에 關連잇는것은 아닌가고觀測하고 잇는데 이것이 實現되면 레닌그라드의 駐在外國領事館은 芬蘭、波蘭、丁抹의三國뿐으로 但丁抹領事館도 閉鎖가要求될터이오 他方 土耳其의 領事館도 減數될것으로觀測된다

支那側서封鎖한 青島港一部解除

【青島十三日發同盟】青島 大港의入口는十二月十八日 [illegible] 支那第三艦隊司令 謝剛鐵의 命令에依하야 同艦隊의 楚豫、同安、榮海의三隻(各三百噸級)을爲始하야 二千噸級 商船六隻을 二列로세우고 自爆沈沒케하야 商船의 出港이 阻止되야居留民은 多大한 不便을 感하고잇섯는데 我海軍은 青島占領後 即時 그解除作業에 着手한結果 十二日午後에 一部分이爆破되야 我汽船二隻(各一千三百噸級)은 無事히 港口를 突破하고 同埠頭에 다앗게되야 積載物을 下陸하엿다 殘餘의部分도 近日中에 解除를 完了할豫定이다

駐佛支那大使 顧維鈞博士海牙着

【海牙十二日發同盟】巴里駐箚支那大使顧維鈞博士는 十二日夜巴里로부터 海牙에到着하야 和蘭駐箚支那公使金問泗氏의 出迎을밧고 即時宿舍로 드러갓다 顧大使의海牙訪問은 國民政府立法院長孫科가 一兩日中에 飛行機로 海牙에 到着하므로 同氏의 莫斯科訪問을 압두고 蘇聯邦의 支那援助에 關하야重要協議를하기爲하여서라고 觀測된다



邪敎征伐의鐵槌! 四十七個集團撲滅

民心을眩惑케하는巢窟을徹底掃蕩 昨年中各道警察의活動

사교정벌(邪敎征伐)! 이것은 작년중 총독부 통치하의 가장 중대한 사실의 하나이엇다 결하야 시국이 긴박하여가고 잇든때이라 허무맹랑한 잡설로 본래부터 용인될바 아니어서 당국은 각방면으로 민심의 불안을 제거키에 노력하는일방 미신타파(迷信打破)의 표어하에 사교의 취체를하며 먼저는 일본내지의 대본교(大本敎)와 인지도교(人之道敎)의 허무맹랑한협잡이 폭로된후 전국적으로 사교정벌의 소래가 놉게되자 조선에서도 문제의 보천교(普天敎)에 철퇴를내리어 뿌리를 뽑게하든등 점차로 사교 정벌이 급박하여 가고 잇든터에 돌연 작년사월중 려사에 드문 참혹한 생지옥을 현세에 그대로 그려내인 백백교(白白敎)사건이발생하니 사건자체가 단순히 우매한인민을 속이는것뿐이아니고 그우에 살인강도, 협박공갈등가 존죄명이 다부를만큼 인간세상의죄악이라는죄악은 모두범한부서운사실이 탄로되니 그동안의 살인피해만이 일백삼십수명이라는 다수에달하야 천하의이목을 충동식히어 상상바기엇다 백백교의 이러한방약무인의 범죄에놀래인당국은 뒤를이어 사교정벌을 철저히하기로하야 각도의경찰부를총동원시키어 적은것은 수십명의집단의것에까지 목려이미신적인것은 하나도남기지 안코 철저히박멸키로하야 이래 각도에서 쉬일사이업시 검거또는해산을 명해왓다 그결과그동안사교정벌의 철퇴에박멸을당한 것이 사십칠개집단에 그교도는 약이만사천명에달하며 그중에는 설유정도로 해산시킨것도 잇스나 대개는 허무하게시국을표방한 목표를세워가지고 우매한농민의 돈을거두어 먹은것이만허 이미 형무소에 수용된사건만도 십수건에 관계자도 근삼백명에 달하는 다수이다 당국으로서는 시국이 사변후 일층긴장하여야할때인만큼 이러한 사교가발호하야 민심을현혹케함은 더구나 용납할수업서 이러한사교는 압으로 일층단압을 하게될터인데 우선 이로써조선내의 사교정벌은 대략 끗난터이다 그리하야지방촌은 만히명랑하여 젓음을볼수잇게되엿다

迷信打破에 效果顯著

神堂佛祠의祈禱至誠도 近來로激減하는傾向

사교정벌은 곳미신타파에 큰효과를 나타내고잇다 보천교섬멸 백백교등의 박멸로서도 그효과가 크거니와 더구나 시기가사변관게로 극히 긴박한때이라민심도 시국의 영향을 바더 자연긴장하게되며 긴장된 인심은 각자가 현실생사기의 실력에의하야 생존케된다는깨닭을 깊히하야 잡신에게 기도하고 무당 장님에게 의뢰하는것은 현저히 줄어드는것을 점차로 알게되어 금년여름 이후는 경성근교의 신당(神堂)이나불사에 기도나 치성하는것도 그수효가 훨신줄어들엇다 이것도 사교정벌과 시국의 긴장된공기가 만히 영향한것으로 민도의 개발과병행하야 이는 대단히반가운 사실이라고 세상은바가위하는터이다

【十二日發同盟】 십일일오전 오시반경에『사모아』군도의『파고파고』를 출발하야『뉴질랜드』의『오-클랜드』에 향하는 도중 남태평양상에서 소식이끈친 범미항공회사의『사모안·클립퍼』기는『로이털』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아메리카합중국기가 떠잇는 의수상기를 한척과『사모아』『우폴』섬의『아피아』항북근 해상에서 조난하야 표류중인것이발견되엇다 정장이하 승무원은 모두 무사하고 방금 구조정이 표류지점에 향하야 급항중이라한다

前妻의"離婚분푸리" 後妻를刺殺雪怨

今曉元町에서發生한殺人事件 潛伏中加害女性逮捕

십삼일 오전 한시삼십분경 시내원정이정목삼번지(元町二丁目三) 도전제통상점(島田製桶商店)에 리호당한 전처가 동침중인 후처를 찔러죽인 참극이 발생하엿다 ... 원정(元町)에서 통장사를 경영하는 도전의일(島田儀一)과결혼하야 이래 동서생활까지하다가 결국 리혼을하엿다한다 그리하야 고진옥대(高津玉代)와는 당당하부부가되어 원정에서통장사를계속하고잇섯는데 리혼을당한 가등춘자가 고진옥대에대한 질투와원한은 것잡을수업서 드디여 경부인 시내삼판정(三坂町通) 고목여삼랑(高木如三郞)과 협의한후 십삼일오전한시에 예리한칼을 품안에품고 도전의일(島田儀一)집담을넘어 뒤문으로 침입하야 때마츰 도전이와 고진이가 곤히잠든틈을타서 칼로 고진옥대의 경동맥을찔너 즉사케하고 그길로즉시 정부인삼판정등 고목여삼랑(高木如三郞)방에 잠복한것을 부산서원이 무난히체포하엿다한다 이급보를받은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는 주견(酒見)이등(伊藤)검사외일인의 검사가출장하야현장을 검증하엿다

(사진은 참극이발생한 도전의 집과 가해녀성 도전추자(우편) 피해자 고진옥대(좌편))

電線窃盜被逮

부내 신설정(新設町)삼백구십삼번지에사는 김성환(金聖煥)(二○)은 전기직공생활을하는것을 기회로 작년십이월부터 신설정등지에서 전선약 이천미돌을 절취해 상에 팔아먹엇다가 십이일 동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全朝鮮國防獻金 四百萬圓突破

―一月十日現在調査―

총독부에서조사한 지난십일현재 조선내헌금은 다음과가튼데 그금액은 실로사백사십륙만여원의 거액에달하얏다

一、國防獻金
(1) 陸海軍兩省에 送付(總督府經由) 十九萬圓
(2) 朝鮮軍司令部 二百九十萬四千八百九十圓
(3) 鎭海要港部四十五萬六千圓(飛行機九臺代含)
(4) 總督府保管中 七萬七千
五百六十八圓
計 三百六十二萬八千四百五十八圓

二、恤兵金及遺族慰問金
(1) 軍事後援聯盟取扱 六十一萬七千五百九十七圓
(2) 朝鮮軍司令部 十九萬九千二百八十一圓
(3) 鎭海要港部 五千四百二十一圓
計 八十二萬二千二百九十九圓
合計 四百四十六萬七百五十七圓

偽造銀貨盛行

朝銀接受貨幣中에 月十個內外는普通

작년십이월중 조선은행(朝鮮銀行)에서 접수한 화폐가운데 오십전위조은화 다섯개가발견되여 본정서에 계출하야왓다는데 매월이가튼 위조은화가열개내외는 발견되고 잇슴으로도내각서에 수배하고 그출처를찻는중이라고한다

計量器委託 販賣를制限

종래 국정계량기(計量器)의위탁판매에 관하야는 일반수요자의 편리와 그보급을 도모할목적으로 시청자의영업여하를 불문하고 허가하야왓스나 원래계량기는 의사용(醫師用)또는 과학용기(科學用器)로서 의과기구판매점 또는 약국 약종상기타영업상 계량기의판매를 필요로하는업자에게 위탁하는것이 가장효과적이므로 금후로는 되도록이판게잇는 영업자에한하야 허가하기로되어서 종래와가티 요리집회상점 또는 비교적계량기와 인연이먼 영업자에게는 위탁지정을허가하지안키로 방침을결정하얏다 현재 위탁판매자로서 이에해당한업자는 위탁기간완료된후라도 적당히갱신하도록 십이일 각도지사에게 통첩을발하얏다

클립퍼機遭難 乘組員은無事

【워싱톤十二日發同盟】 범미항공회사(汎米航空會社) 사장은『사모안·클립퍼』기가 십이일오전팔시반『파고파고』섬서쪽 조난하야『슈잇슨』(?)리의해상에서 조난하얏스나 정장이하조종사와 승무원은 전부무사하다고 발표하얏다

江華島에流氷禍 船客船夫十名行方不明

【江華支局電話】 강화도부근의류빙화(流氷禍)는 십일오전열한시송해면당산리 송천포(松海面堂山浦)를 떠나 개풍군당두포(開豊郡堂頭浦)로가는 목선에선부네명과 선객여섯명이 타고가다가 도중에서 류빙에밀려 행방불명이되여 십이일오후 네시까지도 아모소식이 업다고한다 건넘설게에잇서 너무나 무지하얏던것과 사용하망자가 만다고 덕업시 고흠의사용료를 정한데 기인한다고 일반부민의 비난이 만다고한다

家賃高로非難

府營公設市場店鋪

【元山】 시장의 발전을따라 작추에 중축한 원산부해안통상정목 부영공설시장의 대점포(貸店鋪)삼십칸은 천명가까운 사용희망자의 격렬한 경쟁리에조건이 구비한 삼십명에게대여하기로되여 천명은 이십사원으로부터 이십오원 후면은 십삼원에서 십사원의고금으로 사용료를 중수하게 되엿는데 이고률의사용료와 후면파전면파의사이에 아모등급이 업스므로가미암아 최초의 기대와는달리 점포로서의 사용가치가 감소되여 대여를 바든자중 현재사용자는 삼분지일밧게 안되는형편이다 이것은 부당국자가 공설시장

스포-츠

全日本綜合籠球大會評

潑剌한朝鮮팀 沈滯한各大學籠球團

日本籠協理事 李想白

推薦制併用에依한 新方式으로 一般의 말미아마 競技會의內容은 지금까 지볼수업든 充實性을 보여주엇스나 多年金城을 벗내든 東京大學 리ー그群의 實力低下와準備不足으로因하야 戰績에잇서서 戰前의豫想을깨트려『巨物崩壞』의光景을 보여주지못하고 다못 처음으로 朝鮮籠球를對抗하는近來드물게보는 醫行軍의戰法 普專의 成專門의 潑剌한姿態가 日目을 瞠動시켯을뿐이다 普專은비록 長久한 歷史가잇고 刻苦精勵가 잇섯다고해도 그年齡과經驗으로 이가튼 榮位를차지하엿다는것은 驚異라고할수바게업다 그러나 그鬪志와 體力을뽑어 終始攻擊에 攻擊을더하야 奇襲이라고 할수밧게업다 그러나 或은 術策을 쓰지 아니하고 相對方에對하야 ...

운確實히 다른모든팀으로 하여금 日本籠球의 獨特한 戰法에 버슬어 그 정대의 缺點을 指摘할수있다고해도 年少氣銳의 最長所를 充分히 發揮햇다고 할것이오 ...

[illegible]

普專은 京大에게 期待한 敗北를 하엿다 ... 滿醫大하키大勝 滿洲醫科大學對全京城帝大의 아이스하키試合은 十二日午前十時廿五分부터 城大링크에서 宮川、正木兩氏審判아래 行한바 結局 六對一로 滿醫가 大勝하엿다

滿醫6 (1-0 / 1-0 / 5-1) 1 城大

普專籠球OB組織

普專出身또는 關係者들로 永續性잇는 普專OB籠球俱樂部를 組織하엿다는데 其陣容은 다음과갓다

▲마네저ー=李觀柱 ▲主將=金化泳 ▲選手=宋基宇、安台慶、孫彼得、金鎭岳、金學洙、閔泳震、辛在鏞、李文鎬、金憲權、林東洙、崔界一

運動界集會人事

▲林東洙氏 (普專籠球部코ー치) 凱旋人事次 來社
▲申光浩君 (同部主將)同上
▲新義州高普 氷上部主將崔昌立君外五名은 入京人事次 來社

西北六道를걸처 四十萬圓價格 電線窃取

贓物은定州鑛器會社에賣却 犯人五十餘名檢擧

【新義州支局電話】 철(鐵)기근시대ー선대미문의 대규모전선(電線)절도사건이발각되엿다 지난십이월상순경에 평북정주(定州)경찰서에서는 고물상최모(崔某)를 검거하고 취조하는중에 의외에도 평남진남포(鎭南浦)를 중심으로하야 고물상과 금물상(金物商)들이 대규모로 결탁을하야각지로 전선(電線)전주절도를하야 이를 정주 청정유기회사(淸亭鍮器會社)에 처분한 사건을 탐지하게되여 정주서에서는 시간을 지체하지안코 즉시 정주지방법원지청검사국 긍기(宮崎)사의 지휘를 바다가지고 범인일당의 검거에착수하야 진남포와 평양을 중심으로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함경남도 평안북도에여섯 도를걸처 범인오십일명을 검거하는동시에 정주유기회사로부터 도 모간부이하세명을 검거하고 방금 엄중한취조를 하는중인데 이자들은 고물상을배경으로 대절도단을 조직해가지고 전기각도로허저 전기선을 절취하야 대량으로수집된 전선을 정주유기회사에 일수판매를하야 그간 관계된 피해액이 사십만원어치를 초과하는모양으로 정주서에서는 계속하야 범인체포에 활동중이라고한다

草梁驛倉庫 全部를燒失

運送店宿直員一名火傷 損害五萬五千圓程度

【釜山支局電話】 십삼일오전여덜시십오분 부산초량역(草梁驛)화물『창고』에서 불이나서강풍으로 말미아마 화물창고전부와 상옥(上屋)ー벽업는창고ー한채와 사무소한채 모두세채가전소하고 소방대의노력으로 동아는 건물사백평 약삼십만원이고창고안의상품 약이만오천원으로합계오만오천원이라는데『마루보시』운송의 번일(?)하는사람 일야구일(日野九一)은 약선지삼주일가의 화상을입엇다 불의원인에 대하야는 방금부산서에서 조사중이다

列車轢死人三件

요지음에 자조생기는 렬차사고ー십일일오후여섯시삼십륙분에 봉천(奉天)으로부터 부산(釜山)으로가든 제류렬차가 경부선 지천역(枝川驛)에 도착하엿슬지음에 오십세전후의 남자한명이 렬차가 정거하기전에 뛰어나리려다가 기차에치여서 왼편다리가 끄허저 즉사하엿다 그가가지고잇는것은 왜판(倭判)지천사이의 삽등차표뿐이므로 주소성명은 알길이업다한다

또 십삼일오전八시에 합경선고원(高原)영흥(永興)사이의 원산기점(元山起點)사십오류세전후 백미돌부근에서 삼십오세전후의 조선녀자가 기차에갈려죽어잇는것을 순회하든 보선계원(保線係員)이 발견하엿다 조사해보니 결과 그날오전일곱시에 그곳을통과한 청진(淸津)발경성행 제오백오십사 화물렬차에 부다치어죽은모양이며 주소성명은 역시조사하는중이라한다 십일일오후여섯시쯤에 평원선(平元東部線)축전(杻田)인흥(仁興)사이의 고원기점(高原起點)이십이키로 오백미돌의 부근인흥면덕중양에서 함남영흥군횡천면상평리(永興郡橫川面上坪里) 림룡대(林龍大)의 셋재딸봉납(?)이 왼편다리가 끄어저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고그부근 보선계원에게 통지하엿스므로 그를고원철도의원에 데려다가 치료중이라한다 조사해본결과 그는그런빌을 통행하든중 그날오후다섯시에 고원을떠나 성내(城內)로가는 제오백구십오렬차에 치인모양이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蒙古方面의 高氣壓은 그勢力이强하고 滿洲、朝鮮으로부터 本州方面에퍼지고 千島方面은 低氣壓이 얏다 滿洲、朝鮮及太平洋方面은 날세가조흐며 風雪이强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은 개이고춥다 명일은 北西의바람이이잇스며 개엿다 추우며 京城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下五度
同 最低 零下十二度
今朝最低 零下十五度
今日正午 零下六度二

審議中의三大法令 來月中發布實施

敎育令關係는三月中

오래동안 총독부심의실(審議室)에서 심의를거듭하야오든 미성년자금주금연법(未成年者禁酒禁煙法)、조선소득세령、조선주조조합령(酒造組合令)등 조선교육령(敎育令)개정되는 세가지 법령은 그동안 보통심의를 마치고 이미 법제국에 회부되어 이월중에 발포실시할려이오 개정되는 교육령은 주밀원(樞密院)에 관게가잇스므로 오는삼월중에 발포실시하기로되엿다 도로령은 느저도 작년가을부터 실시하고 미성년자금주금연령은 늣저도 금년일월부터 실시할예정이든바 마침 지나사변이 생기어 착착 잇서서 시국에 관련되는 신법령으로 미루게되엇기때문에 보류되어 그와가티 천연된것이다

審議室山名事務官 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심의실 산하에 미성년자 금주금연령 도로령 미성년자 금주금연법과 조선주조조합령등이 이미 법제국에 회부하얏스나 시국에 관한 법령안이 법제국에 산적하얏스므로 그것보다 먼저 련안은 불혹이 뒤로밀리게되어서 그와가티 천연된것이다 조선교육령 개정안은 시국에도 관련되는것이므로 정기점으로 판련되는것이므로 총독부에서도 급속도로 심의하얏스며 법제국에서도 상당 넘이를 어렵겟다고한다

新年度二部豫算 槪算百七十萬圓

京城府敎育豫算廿日頃査定 重要支出은普校十個年擴充計畫等

경성부의 십삼년도일부(一部)이부(二部)의 교육예산은 어제그개산편성을 마치고 오는이십일경부터 그사정을 시작하기로되엿는데 예산액은 대체로 일부가 일백사십만원 이부가 일백삼십만원 합계삼백삼십만원정도인모양이다 그리고 림시부지의 주요한것은 보통학교확충십개년계획에따라 신축할 공북교어교 선설비와 창경원(昌慶苑)소학교 성동(城東)중학교등의 기지매수비 소학교증가비등이다

大量盜難

【黃金町(?)】 ... 경룡산동번지 지하천송(池下千松)의 집을 태우재 도리어 우리문을 깨트리고 아랫까지칩입하야 장속에 드렷든 십팔관지게 시계를『카로-즈』단추『넥타이핀』반지 기다 현물기타 수백원어치를 훔쳐다는데 소관 본정서에서는 범인을 엄중탐정이라고한다

注目物盜

남대문통(南大門通)... 안병욱(安炳郁)(二)이라는소년은 시사일 오전네시경 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 ... 정목 ... 번지 신원장(申元章) 양복상에 드러가서 내복 양말등 약백사십원정의 정가품을 훔쳐 이것을시사에 넘어서 구한 ...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肺病全快法

사람이肺病에 걸니면 곳죽는줄알고 ... 肺病은治療된다

肺病은 다만自然으로도라가오 ...

그릇된養生法 ... 正當한療法 ... 無料送呈 ...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光明のあたたへ」... 治病의眞理 ...

集募徒生

京城測量技術講習所

▲出願 昭和十三年一月八日 ▲考査 昭和十三年一月九日 ▲六個月卒業 ▲學則請求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一ノ九五 電光二七八九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計記、製圖、使結圖法、數學、滿洲語、實習

盛況謝禮 一割引大賣出

一月十日로十九日까지

今般年末年始景品付大賣出은 여러분의만흔도음을 밧자와 空前의 盛況을이루어 昨日로써 磨勘하얏나이다 이感謝하음을 報答코저 十日동안 一割引大賣出會를開催하오니 前番과가티愛護하아주옵소서

但綿布와疋賣는除外합니다

京城鍾路 九鼎綢緞店 謹白 電話光化門二一一三番

集募徒生

奉天測量學院

▲出願期日 二月三日 ▲考査期日 ▲學則請求スルコト(要三錢切手) 二月四日

◆校舍 奉天十間房(奉天郵政管理局前) 電話本局(二)一四六六番

◇科別及卒業期間◇
△本科 六個月
△速成科 三個月
△研究科 隨意
△通信科 六個月
(通信敎授)

一月十四日ヨリ

松竹全プロ 二大巨篇の

懷かしの灯・嘗ては東京人の搖籃の日の思ひ出なり!!

原作 濱本浩
巨匠 島津保二郞
主演 上原謙・高峰三枝子・夏川大二郞・德大寺伸・坪內美子・松井潤子

淺草の灯

松竹京都十三年度の最高峰一番槍

人肌觀音

雲之丞變化を凌ぐ雄篇時代劇映畫

主婦の友連載中

原作 小島政二郞
監督 衣笠貞之助
主演 阪東好太郞 高田浩吉 伏見信子

京日・朝日・讀賣 特報ニュース

御家族連 明治座

日活 黃金座

13日より19日まで7日間 全映畫界注視の問題作

限りなき前進 11·00 3·30 6·30
東和商事文化映畫 生存競爭 12·40 4·10 8·10
朝日京日ニュース 12·50 4·20 8·20
ジャン・ルノワール監督作品 どん底 1·10 4·40 8·40

暖房完備

本社 大邱支局 電話一四四三

桃花劇場 電話一三三三

大每事變ニュース 讀賣事變ニュース 多數上映

マリヤのお雪
監督 溝口健二氏
主演 山田五十鈴 夏川大二郞

◇松竹キネマ社作品 ... 그님의悲劇の夢想!!

結婚設計圖
新興名畫 監督 EH구리프이트氏 主演 마카레트사리방 젬스스튜아드

一月十三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 晝一時 夜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新富座 京城新富町 電話(本局)五六七七番

二大특수 事變ニュース 多數上映

主演 카츄ー샤 조ー의리미氏

お馬に乘つて 新興大寶映作 全發聲日本版

世界航空戰 (前篇)

監督 윌리암 웰만氏
主演 존하ー크氏

一月十三日부터十五日까지三日間 晝夜二回 正午부터 夜七時上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新年大奉仕

珍貴·神秘·高貴名藥
秦始皇補藥無料進呈

三千宮女를 사랑하든 秦始皇이 服用하든補藥은 果然 무엇이엿슬가?

先着一萬人限 秦始皇補藥 一劑五十回分式 無料添呈

●平和堂이 아니고는하지못할 大英斷的 大奉仕! 秘中秘로 九重宮闕에 秘藏되엿든 秦始皇補藥을發見하야 新年奉仕로 一劑(五十回分)式 無料進呈합니다 驚歎又驚歎의千古名藥! 絶好의機會를일치말고 即時試服하시요 (下段參照)

神人道師、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古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大補元氣! 能治百病!
補血强壯劑로天下第一!

一、洋藥 漢藥을 勿論하고 世上에許多한 補藥中에 百補丸가티 特効한藥은 다시업슴니다 이것은 百補丸이 朝野各界貴族名士를비롯하야 數萬服藥家의 不斷한愛用과 最大의 賞讚을밧는點과 朝鮮藥業界有史以來 百補丸이 最高의賣上記錄을 突破하고잇는點、平和堂이 藥業界에뚜렷한 存在로서 二十年來 絶對効力과 信用本位로 業蹟을 싸아온點、朝鮮에서 하나밧게업는 最新科學的機械의大設備로藥品을 精製法製하는點 (和信落成紀念館四層에서 百萬名來客에게 公開製造하엿슴) 等으로보아 百補丸이 어떠한 藥보다도 斷然 信用잇고 効力이 卓越한것은 明若觀火한 眞事實입니다

二、特히 百補丸은 獨特한 綜合作用에依하야 全身의 五臟六腑를 完全히 補하야 衰弱한 身體를 强健케하며 陽氣不足、消化不良、神經衰弱、貧血、肺弱等의 慢性病을 原因的으로 根治할뿐아니라 特히 大補元氣補陰、補陽、氣血雙補하야 감기와 체증을 모르고 陽氣自興 用之不渴하야 房事過度를 모르게됩니다。더욱이 只今 百補丸 一劑마다 秦始皇補藥一劑五十回分式 無料進呈하는 이때를 일치말고即時注文服用하시요

자랑할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 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 창백하고 全身이 衰弱한분
一、性慾이 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가 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 업고 허리가 압흐고 四肢가 勞困한분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 무겁고 精神이 흐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 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 되시요
一、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 생기고 順借力이 됩니다
一、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 밝어지고 精神이 조와지고 皮膚가 윤택하고 血色이 조와집니다
一、全身 五장六부를 다 잘 補하야 참말 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 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 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 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 몸으로 不老長壽할수 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 淋疾도 消湯됩니다

藥價 一劑 特價 十圓、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人生의再逢春、無病、健康、長壽가 모다百補丸으로

秦始皇補藥은果然어떤것인가

二千年前九重宮闕의秘中秘로永遠히秘藏되엿든 그秘方은드되어 帝國大學에서發見!

萬里長城을굿게싸코、萬卷詩書를불사르고天下를 呼令하며 三千宮女를사랑하든 萬古의大英傑!

●그도 長生不死가 最大所願、天下의 不死藥을求하려고 侍臣徐福을식히여 童男童女五百人을 東國에보내는等 科學的研究 神秘的祈禱 千辛萬苦로求한바 그神秘方은 嗚呼라! 遺憾이여! 그後 人類愛를爲하야 世上에發表되지아니하고 九重宮闕에 永遠히 秘藏되고 마럿든것입니다

●今般帝國大學工學部碩學의손에 秦始皇古文獻數百卷을 涉獵苦心硏究調査한結果 時代正히健康第一을 高唱하는이때 마츰내 白日之下에 遂發見되여 億萬人生의熱狂的歡迎을 밧게되엿슴니다

●本社는 이天惠의神秘名藥을 天下에頒布키爲하야 卽時現代人에適合토록複方으로 製酒하야「正氣速補散」이란名稱으로 當局에許可를受하야 其間數萬服藥家에게 試用分을無料頒布하온바 모다 그非常卓越한効力에敬服하고잇슴니다

●今番本社는 特히新年大奉仕로 百補丸을注文하시는 人士一萬人께限하야 千古秘藏의 이名藥一劑식(五十回分)을 無料添呈하기로 大英斷的大奉仕를斷行하오니 健康한사람이나 虛弱한사람이나 千載의 好機會를일치말고 天惠의 珍貴한선물을밧기바라나이다

帝国大學 工學部에서 新發見

千金으로不換할 秦始皇補藥의內容

●非常한 腎氣强化 早旱特効劑!

神秘方 秦始皇補藥의 內容은 모다非凡한藥材들이며 卓越한 精力增進劑로腎氣强化 早旱特効劑임에는 놀나지안을수업슬뿐아니라 그効力이 神通可驚한것은 다시疑心할餘地도업습니다

더욱이 大補元氣劑 百補丸과 秦始皇補藥을兼用하면 陰陽과氣血이雙補되여 白髮老年도 無限한 精力이 湧出함으로 本社가秦始皇補藥을 正式發賣하기前에 今般特히 百補丸愛用客에게 一一히 無代添呈하야 實際的廣告를하는것입니다 百補丸은 人體의五臟六腑를 完備하고 元氣와 氣血을 大補하야 人體基根을 强健케하며 秦始皇補藥은 主때强腎 强補 補陽劑임으로 百補丸과此藥을 兼用하면 生陰 半陽 左右兼全 用之不竭하야 驚歎의眞効를엇게됩니다

秦皇始補藥
無料進呈規定

一、本社新年大奉仕로百補丸一劑注文하시는人士마다 秦始皇補藥一劑(五十回分)을 無料添呈함
二、無料進呈은先着一萬人限임으로機會를일치말고 남보다 먼저注文하시오
三、注文書에는必히新年奉仕注文書라고쓰시오

調經·胞胎·補血·强壯
婦人百補丸
代々孫孫·鉄血子女

●藥價一劑七圓·三劑二十圓 以上共同注文하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電光六三二一番·[illegible]〇番·振替五[illegible]

중년부인들은 얼굴이 어색하지요?

분을조합을해서바르면 이런걱정은업서집니다

젊은 여인네는 본래가 예쁘니 화장에 큰걱정이 업스나 중년부인은 점점 피부가 느러지고 주름살이 생기니 화장이란 것은 정말중대한의의를 가지고 잇습니다

중년부인의 화장으로 제일중요한 것은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안토록 함입니다.

너무지튼 화장을 하면 도로 더 늙어 보이는수가 잇습니다

연지와 루—주는 엷게 보이기위하야 반드시 칠하지안흐면 안되나 아조히미하게칠해야 합니다.

가령 얼굴이 노파진데다가 연지를 지튼게 칠하면 얼굴은 더욱 노파저보입니다

늙어서 얼굴혈색이업는데 루—주를 지튼게칠하면 얼굴전체가 루—주의 영향을 바더서 더욱 늙어보이는것입니다.

따라서 루—주와 연지빗갈은 오렌지나 엿듯한주황 가튼것은 쓰지말고 핑크가좃습니다

울트로—스가튼빗갈은 그다지 찬성할수업습니다.

눈섭도 너무가늘게 그리면 늙어보입니다 가장자리를 히미하게하야 굵직하게 그리는것이좃습니다

분은 여러가지조합해 바르는것이 좃습니다 죽회색 누른것 흰것등을 섞그면 살빗과비슷합니다 중년부인의화장에 분을 몹쓸게바르면 분이피부에잘먹은드시 보이지안습니다

눈자위 특히눈미트는 유달리 늙어보이는것이므로 여기에다가는 분만히 바르면 더욱늙어보입니다

귀뒤는 나이와함께 윤곽하여지는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목덜미의경게선이 점점 변해가 나고잇스니 여기에는 분을지튼게 발러도 좃습니다

몰분과 연분(練粉)은 늙어보이니 이것을바르지말고 콜드크림을 쌀낫만큼가지고코를 중심으로하야 사방에고르게펴서 그우에 가루분을두다려바르고 그것을 터러버린뒤에다시 바니싱크림을발러서 본격적으로 가루분화장을 하십시요

눈의예술 거리의「미로」

스위스의「아로사」산골짜구니 백운의 언덕비탈을 종횡으로 달리는 스키—어들을 빙그시 웃게하는「뷔너스」상이 서잇습니다. 어느청년의 작인지 제법서 정파의작품입니다.

家庭

걸리기만하면 좀처럼 안낫는너리병

잇몸에서피나는일이업습니까 얼른조처를합시요

축치는 보통누구나 알는다고합니다 그러나 축치처럼누구나 알는병으로 치조농루(齒槽膿漏—너리병)라는 것이잇습니다

이두가지병은 문명인의이에 대재앙이 되어잇습니다

치조농루는 축치와 달러서약으로 곳낫지안습니다. 전문의사에게 기술상의치료를바더도 잘낫지안습니다

이병이 경할때는 당자가 잘깨닷수업슬 경우가 만습니다 중세가 중해에 빠지면 치근으로부터 고름이나던지 니가흔들려서 음식을 잘씹지못하며 말도잘 할수업고 신열이 생겨팔도로부터 사선도로중립가고 술울이헐고 치근에서 피가나는등 여러가지 불쾌한 장해가 일어납니다

치조농루가 기퍼지면 전신적으로는 신경쇠약과 만성적 류—마치스를 이르키고 국부적으로는 턱에골수염을 이르켜서 나중에는패혈증으로 죽는수가 잇습니다

니ㅅ밥에서 고름이나는것은치근을 둘러싼 치근막이 국부원인과 전신원인에 의하야 화농성염증(化膿性炎症)을이르키는 까닭입니다 치조농루의원인은 지금까지의 의학으로는 아즉판명되지 안엇습니다.

국부적원인으로서는 치석(齒石)의 침착(沈着)이란는것이 잇습니다

이것은 가태치속의 칼슘염류가 치근면에 침착하므로서 치근과 치근막의량면에 염증을이르키는것입니다 거기에 화농성의세균이드러가서 만성의 화농성염증을 이르킵니다.

전신적인 원인으로서는당뇨병이라던지 만성신장염이라던지 매독등을 들수잇습니다

또한 편식을하던지 비타민이 결핍되어도 이병의원인이 되는수가 잇습니다

이병은 치석의침착이원인이므로 치석을 후버내지안흐면 안되나 치석후비는것은 자택에서는되지안습니다 전문가가 치료할때는 렌겐사를하야 병의진행정도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결정합니다

약으로 치료하라면 치석을빼내고 남은잇몸을 끈허버리며 입안을 깨끗하게하야 약을 넛습니다 이밖게도 외파수술을하는수가잇습니다.

치조농루는 한두개의니만 탈나는법이업습니다 흔히 니의전체를침약합니다 그러므로 치근전체의반이 이병에 침의당하야 파괴되면 나중에 외파수술을 해도소용업스며 니를전부빼는수밧게도리가업습니다. 이병은 모르는사이에 진행하는것인데 한번 이것을 자각할때는 벌서엇더케할도리가업슬것이니 일안의섭생만 등한시하지말고 미리부터 걸리기전에 예방하도록 다음의네가지조목을 주의하십시요 제일은맛사—지입니다 손구락으로 니ㅅ몸을 문지르시요 이것은 잇몸운로해도 조흔데 하로한두번식 일분동안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병의초기라면 효험이대단히잇습니다

제이는 옥시풀의청결법입니다.

신문과잡지에서 위생기사에 옥시풀사용을 권한다해서 약방에서파는 옥시풀을 그냥쓰면 산성(酸性)이강하므로 중조로중화시켜서쓰지안흐면안됩니다 약방에서 파는 옥시풀八○그람에대하야 십배의중조수(重曹水)를 네다섯방울너허서 이것을솜에찍어서 니와치근을닥습니다 제삼은섬유성(纖維性)의 식물을 잘먹되나물반찬을 주식하십시요 제사는 음식을씹을때에 좌우의치렬(齒列)을균등(均等)으로사용하고한쪽에편벽하지말것입니다

섞거먹는술에 골습넨다

반드시버려야할『청탁불관』주의 해정은 안는것이 제일

술잔을 마실줄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겟지만술을 여러가지섞거서 먹으면 더취하고 욕을 더봅니다

섞거서 먹는다하더라도 갑절이나 더취한다는말은 물론아니나 가튼양을먹는데라도 칵텔은 리큐—르보다더 속히체내에 흡수된다는것을 연구해낸 학자가잇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단일주(單一酒)보다 혼성주(混成酒)가 더속히 흡수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맥주와정종과 양주를 섞거서 먹다가 욕을더보앗다는것은 그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가지의리유가 잇습니다

그리유란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술을 오래먹기보다여러가지를 섞거서 먹으면 술먹는분량이 훨씬만허지기도합니다 복근종을 먹는데도 몰랑마시여가면서 먹으면 얼마나더만히 먹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찬이 만흔끼니는반찬가지수가 적은것보다 훨씬만히먹혀집니다.

그리고 술이란것은 신경계를 자극하야서 소량으로는 억제력과 사양을 업새버리고 만히먹으면 일체의 활동을 빼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계속하는사히에 그만한성으로 중독이되여버리며 섞거서 먹어도 처음에는 아모런술을 먹어도 취정을 하지안코오건 착실하게 행신을 삼가다가도 그것이 어느사이에 취정하는데 재미를부치면 그만습관이 되어서 취한다음에 취정을 하지안흐면 술먹은것가지안습니다 더욱요사히처럼 정초의 술은 아모런사양도 조심도업시 유쾌하게 떠들고마시며 취정하기위하야 먹는수가 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어뜬버릇이 너무길이드러가면 나중에는술꾼으로도 망난이술꾼주정뱅이가 되기쉽습니다 술을먹으라거던 섞거서 먹지말도록하십시요 해로운정도는 말할수업고 뒤ㅅ머리도 훨신더아풉니다. 그리고 마취와마비가속하고강하므로 중독되는 정도가 훨신더한것입니다.

술이야기가 낫스니말이지 뒤ㅅ머리라 하는것도 술꾼에게는 큰문제가 안일수업습니다 어제밤에 잘놀고 만히마시엿스니 오늘은 조용하고 양전히 국다는것은 그다지 큰변이안이나 이것은 실상 양전해서양전해진것이안이고 술의뒤탈이낫셈입니다 남에게 엉석을피우고드러누엇슬 처지도못되고 출근시간에대여서 오기는왓스나 무엇이어며케되는지도 분명하기어렵도록 흐리어지고 머리가아프며 사지가 비고여 드러가는듯하야 당자는경말 질색할노릇입니다.

이것을 일본말로는『후쓰가요이』라고하고 독일말로는『캇첸야메르』라고하는데 조선말로번역하면『고양이의고민』이라고될니다.

정말 술탈이난사람의 얼굴은 고양이가 고민하는 꼴악선이와 비슷한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적절한말이업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영국사람은 술을먹는데 늘제한이잇는모양입니다. 얼마전까지에도영국서는 술먹는시간의제한이 잇서서 그시간이지나가면 술을마시거나 술을가지고 다닐수업게되엇습니다. 그래서 술탈이축처럼 나지안키에 사전에도 적절한말이업는데 그처지로 꾸며노흔말에『모—닝·애프터·디·나이트·비포—』라는 길직한말이잇습니다

술이뒤탈낸다는것은 마취약에큰단현상(禁斷現狀)이 이러나는것과 마찬가지로 알콜이 세포로부터 완전히 업서지라는때에 이러나는고통입니다 이것이 정말술이께여지는것입니다.

해정을하면 속이풀리고 조타는것은 알콜이 다시세포속에 드러가므로 일시의금단현상으로서 생겨나는 우울과고통이 업서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알고보면 해정술이효험이잇는게아니라 술탈을로아 프로 연기시키는데 지나지안습니다.

그러기에 해정술을먹기보담그냥참어서 깨여버리기를 기다리는것이 조흡니다.

이왕술을먹는사람이면 말이덜나게먹으라는말이니 술이야기를 쓴다고 역정을 내시는 안이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터입니다

主催	京城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第15回 今十三日밤七時 **女子擲柶大會** 會費 三十錢

第10回 明十四日밤七時 **女子歌鬪大會** 會費 三十錢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

「오늘밤은윷노리 내일밤은가투대회」

인끼야말로대단합니다

경성녀자기독교청년회주최와본사학예부 후원의 제십오회척사대회는 오늘밤으로 끄치나고래일밤에는 녀자가투대회가 열립니다.

척사대회에는 상품이 만커니와 참가한회원도만허 성황일것은물론이어니와 재이일의 가투대회에도 척사대회에 지지안케 상품이 만흘뿐아니라 참가한회원도 만흐며 경기가색다른것인만큼 별별재미잇는일이 만흘리라하야 장안의가정부인들 사이에는 이야기거리가되여잇습니다 정초의하로밤 녀자들끼리만모혀서 고상한취미와 지식과정신을 기르고도 재미잇게놀수잇는 가투대회의모임은 근래에 드문큰모딈이될것입니다. 맑고 아름다운목소리로 시조를읽을때 가사조초귀니와 그가사에 마추어서 카—드를집는아깃자깃한맛은 미리부터 상상만하야도 기분이청아해집니다. 그러면여러분! 래일의 가투대회에도 꼭오세요

中篇小說

女人命令 【19】

李善熙 作 / 崔根培 畵

別離 (十三)

숙채가 집에돌아와 잇슨지오늘이 벌서다새채다. 처음에와서 한이틀은 별스럽게 조와하드니 그담부터는 늘말이업고 무엇을 근심하는 사람갓다.

종일 재박속에 들어안저잇지 안흐면 뒤겨롤 거니는데 그뒤겨엔 큰돌배나무 하나가 서잇다.

숙채는 흔히 저녁때만되면이 돌배나무마테 나와 그아랄드리몰뭉이에 의지해서 멍하니하늘을처다보고서잇는것이다.

돌배나무의 우울두울한 늙은껍데가 등허리를 떠겁게하는것도 잇고 섯노리면 흔히 숙채어머니가 딸이보고시퍼 그미트로 쪼차나오다.

『얘야 너는 오래간만에 왓스면 에미하고 이야기도하고하지 어째 밤낫 그리구만 잇니?』

숙채어머니는 숙채가 외딸인데다가 늘공부하러 다니노라고 그립고 보고십다가 이러케 방학이되여 집으로 돌아오면 어떠케해서든지 딸의거테 부터잇서서 떠러지기를 실혀한다.

더구나 인제는 숙채가 스물한살이나 먹어 다잘아노흔딸이니 의지하는 마음이나 딸이 업슬동안 남편한테 노엽든일이 다가는 숙채가오면 하소를하는것이다.

그럴때면 숙채는 의례히 어머니의 편역을들고 또조로록위로를해 드리기때문에 어머니의게잇서서는 숙채가 다시업는귀한딸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노엽고 분한일이란도 웬만해 참어두엇다가 딸이오면 저저히 일러바치는것이다.

그리든것이 이번엔 숙채가할수잇는대로 혼자만잇고 간혹에 어머니가 겨테와서 넘우긴이야기라도하면 구찬어서 코똥을찡기는것을본다.

그리고 더구나 이상스러운것은 밤마다 숙채가 어디갓다가 열두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얼골이 하이얏케 질리고 심상치안흔 거동이 걱정을 노치못하는어머니는 지금도 돌배나무미테 쪼처나와 무에타고 말을부치는것이다.

『얘 너나하고 이모댁에 안가련? 방학이돼서 왓스니 인사도할겸……』

『안가겟서요』

어머닌 몰론 숙채가 실타고할줄을 알면서 해본말이라 별로 여러말을해서 딸의심미를거슬을수가업서 그냥잠잣코 잇섯다.

『어머님 드러가서요. 나두 조곰 잇다 드러가께』

『웅 드러가마. 그런데……나암만해두 이상하다』

『무에 이상해요?』

『네가 전과는 다르니까 말이다 신색이 다조치못한게……』

어머님 처음엔 숙채가 이러케 하는것을 거저 그러거니했다가 문득 한가지 생각이 번개가티 머리에 떠올르자 어떠케 해서든지 말에 기맥을 떠보고 시펏다.

그 번개가치 떠오르는 생각이란 딸이 무슨「시집갈 궁리나 하지안헛나」하는것이다.

그도 신식엔『연애』라는걸 해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소리를 들엇고 또 막연히 자기딸도 무슨 그런짓을 할것가튼데 자기로서는 그것을 막을생각은 업섯다.

어머니는 이러한 생각을하며 보지도 못한『사위』의 모양이 눈에 보히는것갓고 무슨 경사가 쉬 날것가터서 은근히 기쁘기도햇다

『야—그런저나 내네게 무러볼말이잇는데 방으로 드러가자쿠나』

숙채는 잠잣코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드러갓다.

어머니는 딸을 아랫목에 안처노코 얼골을 이리저리 돌리며 거북하게 말을끄낸다.

『너 에미한테 무슨 못할말이 잇니. 그러니 속에잇는말을다 해봐라. 사람이 무슨 근심을 속에다만 너허두면 병이되는 법이다』

『내가 멀 근심하는것 가태뵈우?』

숙채는 사실 서울서 온후에 유원이가 이틀후엔 올줄알엇다 그리든것이 벌서 오늘이 닷새재나 되여도 오지안는다.

보통가트면 이틀후에 오겟다든 사람이, 닷새후나 한주일후에 오대도 그리큰일날것은 업지만 유원이의 경우는 그러지안흘것이다.

더구나 그근심하든 얼굴—오다는 날자와 시간을 어긴다는것은 반다시 그이상의 무서운 중대성을 가지고잇기때문이다.

숙채는 생각할사록 혼자온것을 후회햇다. 이리노라니 자연어머니눈에도 이상하게 뵈엿든것이다.

『그런데 네가 벌서 사흘밤이나 어디갓다가 그러케 늦게 오니?』

숙채는 눈을 지긋하고잇다가 어머니를 불럿다.

치위에떨다가 이불속에누면

몹시고통을느끼게되는 부인병을어떠케하면 속히곳칠수잇슬가

부인병은자궁속에병균이잇는때문에 생긴병인만큼 먹는약으로는 절대로 낫지안습니다

몸전신이 놋곤하고 두통이나며 팔다리와허리가 쑤시며 땡기고 아푸며 피곤은하나 밤잠을 잘일우지못하야 신음하고게시지안습니가? 더구나 아래배와 밋이 몹시 쓰리고 아푸며 몸서리칠만큼 악취나는 냉중(대하증)이 흐르실것입니다.

엇재 이상과가튼 부인병의증세가 생기느냐하면 자궁속에 병균이 드러가서 활동하고잇는 때문에 그와가튼 증세를 여러분께 깨닷게하고잇는바입니다.

그한 냉증도 치위에 몸이 냉하야서생긴것이 아니고 국부속에서 활동하고잇는 병균으로말미아마 흠집과 진물르는곳에서 나오는 진물과 고름이오니 하로바삐 병근인 자궁속에잇는 병균을 죽이고 흠집과 진물르는곳을 다스려야만 부인병이 낫게됩니다.

그러면 어떠케하여야 속히 곳칠수잇느냐하면 반듯이 직접 병의근인 국부에치료하여야만 근치되는병입니다. 그러나 혹이 여러분께서는 습관에따서 부인병도 먹는약(탕약、가루약、물약、환약)으로 낫는줄알고 장복을하시는분이 게시나 먹는약은 배속을지내서 그곳에 약기운이 일으게됨으로 그런약기운으로는 죽기에는 너무도 굿세인병균이오며 그러힘으로 압흘기에는 너무도 엇엉나게 큰 상처가 생겨잇는까닭에 아모리 장복하여도 근치가못되고 병균으로말미아마 부속적으로 생긴 예병증세를 조곰 다스림에불과하신바와가티 낫지안튼것이엿습니다.

그러면 직접국부에넛는약=座藥、膠球、흐접으로환(球丸)이면 모도조흐냐하면 절대로 그럿치 안습니다 보통 민간에서 재래에 팔니워오든 넛는약은 모도가 일장일단의 폐해가잇스니 그런종류의약은 大病院서 쓰지안는것으로보아도 그효과를 짐작하실수잇슬줄밋습니다. 그러므로 부인병치료는 반듯이 전문病院治療나 혹은 帝大病院서 쓰는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로 곳처시야만근치되여버립니다.

이런증세의분은 와세돈球로 곳 근치됩니다

아래배 허리 아푼분

치운요새에허리와아래배 손발이 몹시 스리고아푸며 땡기고 결니며 월경때면 더욱 아푼분、월경이고르지못하고 두통、현기증、불면증、변비증、숙병이생기고 살결이거치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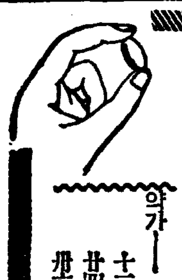
대하증 (냉증)

국부가 가렵고 쑤시고 아푸며 오줌이 잣고 뜻뜻한 이불속에들어가면 몹시 가려웁거나 신열이나고 냉이흐르는분、고름빛、누른빛、푸른빛이도드며 악취가나서 고통밧는분……

자복업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시거나 혹은 고통을늣기는분、아해를 못배시는분、늘 류산、사산하시는분、속히 늙어저서 살주름과 파래가는 매력을일허하시는분들은……

두말업시 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 가정에서도 유명한병원치료와 똑가튼 치료효과를엇어서 단시일에 근치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약갑도 실비인만큼 치료비도 퍽경제적이오며 경한분은 이틀에 한개 중한분은 하로에 한개면 충분합니다



약가—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三十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

帝大病院서쓰는 와세돈球

처음으로 민간에제공된 의사전문약

약한개로 三分間이면 효과가나타나는『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는 권위잇는 각지의帝國大學病院과赤十字病院을위시로 府立市立과 유명한大病院에서 매일수만흔 부인병환자를 구원하고잇는『의사전문약』을 처음으로민간에 제공한약이니 그신용과약효는 더말삼드리지안어도 잘아실줄밋사오며 더구나『와세돈球』에는『여성홀몬』과『비타민A、D』가 가입되어잇스므로 부인병치료뿐만아니라 살결을 어여쁘게 회복식히고 女性美를 다시금 차즈시게 만들어주는 신효를가지고잇습니다. 그러므로 하로바삐 부인병을근치식히실여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병세를 조선문으로 자서히 쓰신후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

으로 주문하시면 대금이환으로 도송약해드리며 적절한조선의치료법과 조선문으로쓴의생지식서류와 河合、木村兩博士著의『女性의新生理學』을거저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早春化粧は明朗に清麗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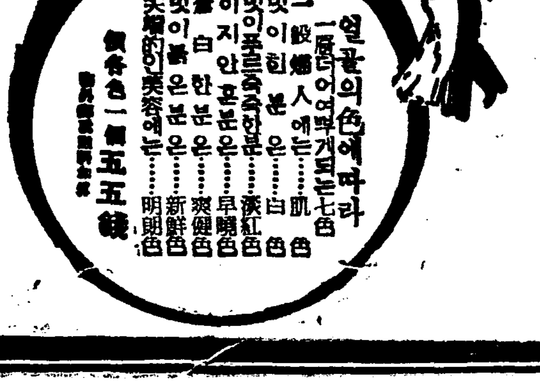
タンゴドーラン

탕 고 도 ㅡ 랑

陽春의清楚함을爽快히늣기는戰捷의봄입니다。健康한柔肌로추위를무서워말고明朗한自然美를適確한榮養으로만들고新陳代謝가旺盛하고艷麗한若肌를清楚한가운데發見해주십시요

따듯안榮養

살결이거칠기쉬운겨을에艷麗한柔肌를保全함은손질如何에달녓습니다 瞬間化粧料인タンゴドーラン은크림과白粉과化粧水의綜合科學製造品으로서 豊富한榮養은直接皮下에浸透하고 皮下細胞를根本부터뜨더고치고살결은어느듯어여쁜柔肌가되야寒風期에는곡必要한若肌의保護가됩니다



全國百貨店、藥店、化粧品店에잇슴

鳳島メール本舖・株式會社・宇野達之助商會・東京・大阪

小文章

趣庭錄 (二)
男子의귀ㅅ고리
鐵山生

漢土의 女人들은 只今까지도 귀를 뚫러 귀ㅅ고리를 달지마는 조선서도 녯날의 女人들은 역시 귀ㅅ고리로 貴重한 飾裝品을 이루고 잇섯다. 高麗以前은 勿論이요 漢四郡에 들어와서도 三百餘年前까지는 잇섯다고推察된다.

明人 田藝衡의 留靑日札에는 『女子穿耳。帶以耳環。自古有之。乃賤者之事。莊子曰。天子之侍御。不穿耳。』라고 하야 天子의 侍御는 穿耳치 안는다는 莊子의 말로써 귀ㅅ고리가 賤者의일이엇다고 斷定하지만은 그斷定의根據가 그다지 튼튼치는 못 하다

史記의『夫人脫簪珥。叩頭』라는 句로 보아 漢代에도 반듯이 賤者의 일은 아닌듯하거니와 杜子美詩의 『玉環穿耳誰家女』로 보아 田氏自身도 말한 바와가치 唐代에는 女子의 普通耳飾이 되엿든 것을 알수 잇다.

그런데 우리 조선서는 三百餘年前까지 女子뿐이 아니요男子들까지도 귀ㅅ고리를 달고 다니엇든 證據가 잇스니 金時讓의 涪溪記聞을 보면『宣廟五年壬申。傳于政院曰。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毁傷。孝之始也。我國大小男女。必貫穿其耳。作環而垂之。取笑於中國。亦可羞愧。自今痛革胡習。大載王言。可以化民成俗也。』라는 이야기가 잇다. 男子들까지 귀ㅅ고리를 단 것은 그 當時 漢人들의 譏笑를 바뎃슬수도 한 일이나 父母에게 바든 身體髮膚를 敢히 毁傷치 못 한다는 儒者의 道德이래 드되어 女人들의 귀ㅅ고리조차 업새 버리게 된 모냥이다 本來 漢人들도 그사내아히를 賤稱하게 네가는 뜻으로써 將來를 祝福키 爲하야는 한 귀만을 뚫러 놋는 例가업지 안 하니 그역시 녯날에는男子까지 귀ㅅ고리를 달든 證據이라고 보인다 漢人들이 男子에게 限하야 귀ㅅ고리를 달지 안 한 것은 어느때부터 인지 모르겟지만은『天子之侍御。不穿耳。』라고한 莊子의말도 或男子에게 限햇든 意味가 아닐찌 모르겟다. 지금 野蠻人들中에는 男女가 다한께 귀ㅅ고리를 다는 것이 그다지稀罕한 일도아니다. 그中에도 大洋洲필리우島의 土人男子들은 어찌나 무거운 귀ㅅ고리를 달든지 귀ㅅ바퀴의 한 가닭이 어깨우에까지 나려와서 철렁거리 고잇는 例도 업지 안타고 한다.

新春創作評 (一)
作家와作品以前의興味
安懷南

나는 이러한論評의글을 써 여러번썻다. 지금생각하면 所謂創作月評이라는것이 너머하잘것업서서 쓴것이엿다. 世上사람들에게그리 할만하게 여겨진것인지 안코도그

筆 者들自身은 否之於作家들에게까지 이없게 보이지못한 모양인데 이번에도나는『朝光』『三千里文學』等 創作欄을 죽 선보고나서는 그리한感을 가젓다. 어떤 동무가말하기를 요새文人들중에는 讀者를위하야 쓰는것이 아니라 編輯者를위하야 쓰는것가튼 印象을주는 사람이 만타고하엿는데 이말과 이번創作欄과를 聯結하야 생각하게된것은 遺憾이며 따라서 우에이야기한대로 다시 無稽가 그와가튼 結果를招來하더라도 그것은 나의허물이아니라 그反對일거라고 미리 斷言하야 두고시픈것이다.

作家와 現代저널리즘의 關係니무니하며 事大主義者들은 허풍을치며 나를듣지도 몰으지마는 내가 하랴는 그런 거창한 意味의것이 아니다. 가령 由氏의『旅行小話』가튼것을 두고보면 단지 素質만을 하기위하야 된것이 뻔하다. 이것을 좀 직굿게 꼬집어뜯더서 말하면 編輯者가 그러케 졸으니

東 京서 굴러다니는 되다 짜부러진이야기라도 하다고는 原稿紙서너장에다 적어서 보내것갓다는것이다. 作者도 旅行小話니 뭐니 하고 또 이것은 한개 잔소리라는 等 은연중에 꼬리를 빼엿지만 讀者大衆을 위하야 쓴것이 아니라 編輯者 단한사람만을 위하야 쓴것이라고 말한 나의동무도 아마 이러한것을 가르친것이상십다.

批評하는사람은 作家와作品에對한 自己의 모든 不滿을 完全하게 說明을다해야만할 義務가 잇다더라도 이런娛樂雜誌의 六號記事에 不過할 程度의것을 決斷코 創作이아니라는 證明을 行하기위하야까지 애쓸必要는 업슬것갓다. 批評家도 그러케까지 虐待밧는것은 이러한境遇 한번쯤 拒絶하여도 마땅한일인것이다.

咸鎭午氏는 過去 自己가 한 동안 作品를 내이고 잇섯든것은 오로지 스스로 내自身을 스러운 作品이다. 그러면 李孝石氏의『薔薇병들다』만 남기어노코 上示列擧한 條件으로도이

過 信하엿든까닭인데 이제 부터는 다시 내힌것적 도의것을 써가리라 하고 말한것을 읽으면하야 今月創作中 나는 가장 期待를가젓섯다. 그러나 먼저 枚數를 세여보다가(이것은 나만가진 못된버릇인가?) 끄테가서『未完』이라는 文字를 發見하고는 읽기시작지를못하고 다른作品으로 자리를 옴기엿다. 菊版 二段組다섯장이 뭐겟다고 作者와 讀者와 評者를 모두한꺼번에 不幸하게 맨드러버리는지가 理解하기 어렵다.

다음 李箕永氏의『노루』와 李泰俊氏의『浿江冷』은 小品이고 金東仁氏의『伯頭』는 大端히 능난한 通俗小說이며 崔貞熙氏의『靜寂記』는 素材에對한 作家의 藝術的裝飾이 新鮮한것이요 姜鷺鄕氏의『森林』은 무슨理由로하야 이新人이 新年創作陣의 대기에 推薦이되여잇는지 疑心

失 敗를했다고 한 나의 讀感은 가지고 드러맛 번月評 역시 作家는 作品을 나허노흔에 어느程度의 自信을 갓게되는가 고마는 모양이다.

作家는 作品을 나허노흔후에 어느程度의 自信을 갓게되는가 하는 問題는 매우 興味잇는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용 自己들이 思索한 그대로 그것이 作品우에 描寫하여젓다고만 錯覺하는 품이다. 아마 簡略으로생각하는것은 形體가업지만 文字로그리여 논것은 目前에 보이지가 理解가 그리치안코 描寫하며는탓인가 說明하는것은 限定되여잇지만 考慮하고 思索하는것은 作家들제 마음 自己主觀대로 無限히 豊富한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作品에 醉하는것이 아니라 늘 作品以前의 幻想에陶醉하고 저저잇는것이다.

科學의法則性
主觀的秩序와客觀的秩序
③ 徐寅植

要約하여말하면 古典學派는 數學的自然科學的方法에 依據하엿든만큼 그들은 經濟學의法則定立은 無難히할수잇섯으나 또한 그일은바法則을 歷史를超越한抽象的一般法則으로 定立하엿다.

그러나 古典經濟學의 定立한 法則이 抽象的이엇다는말은 決코 그의現實的 効用價値가 업다는것을 말하는것은아니다。定立한 法則이 抽象的이엇든만큼 그의 効用價値는 돌오혀 具體性을 獲得하엿다. 왜? 法則의 抽象性은 돌오혀 普遍經濟法則의 絶對性을 論證하는것이며 더나아가 古典學派의 祖國인 先進英資本制의 世界的優位와 그의 世界政策의 理論的支柱가될 수잇기때문이다.

따라서 가튼資本制國으로서도 英國과 對蹠的地位에 잇서든後進獨逸에 古典經濟學에 對立하는 別個의經濟學派가 出現하엿다 함은 當然한일이엿다.

獨逸의 經濟的後進性은 이나라 經濟理論家들의 現實的 關心을돌아 經濟의 一般的側面(?)보담도 歷史的側面歷史的特殊性을 高調하지안흘수업게하엿다 이리하야古典派經濟學의 對立物로出現한歷史學派經濟學은 前者가 硏究對象을 自然的秩序로 想定한데反하야 그것을 歷史的秩序로想定하엿스며 따라서 前者가經濟法則을 自然的 一般法則으로 理解한데反하야 後者는 相對的特殊法則으로 理解하엿다 (其實은 그들의 理論은 究極에 있어 法則定立을否定하엿스며 그러되 그의 方法論的歸結로서도 그리되

다 하더라도 그것은 當然한것이 업을것이다. 우리가이 곳에서 말하는 別個의 經濟學派란 前世紀中葉에 擡頭하야 롯셔 힐데브란트와 크니스 와구넬 等에 代表되는 歷史學派의 經濟學을 말하는것이다.

지안흘수업섯지만) 勿論가튼歷史派學者라 하더라도 學者를따라서는 方法과 理論에 緩急과 徹不徹의 差異가잇섯고 大別하여 말하더라도 前期學派와 後期學派의間에는 顯著한差異가 잇섯다.『로셔』『히르데브란트』等 前期學派의 方法과理論은 歷史學派의 學的立場으로보아 當然히 到達하여야할 方面에서 徹底하지안흔 不徹底한性格을 脫却하지못하엿다. 그들의主張은 古典學派의 理論을 根本的으로는 是認하면서도그의 一般法則을 現實의 經濟事象에 適用할때에는 各國民經濟의 發展段階를 顧慮하야 各各相應한 程度로 修正하지안흐면 안되리라는程度에 끄첫섯다. 따라서 前期學派의 方法과理論은 歷史學派로서當然히 가저야할 獨自의立場에 到達하기爲하여서는 슈몰레르 와구네르等 後期學派의 方法과 理論에까지 發展=純化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歷史學派의 理論의 基本性格을 理解하는데는 重點을 前期學派보담도 後期學派에 두는것이 理論上當然할것이다.

歷史學派가 經濟秩序를 歷史的秩序로理解하엿다는데는 두가지意味가잇다. 첫재 그는 時空을超越한 固定的絶對的普遍的秩序와對立되는意味에잇서서의 進化的相對的特殊的秩序로 理解되엿스며 둘재 人間의意志와目的에서 獨立한客觀的物質的秩序와對立되는意味에잇서서의 目的的倫理的秩序로 理解되엿다. 特히 後者는『카르·크니스』『슈몰레르』가 그들의倫理的歷史的方法論에서 가장 明白히表白하엿다.『크니스』는 經濟秩序를 各國民性을基礎로하고成立한 特殊한歷史的發展의 成果=特히倫理的政治的發達의 産物로 보고 經濟理論의 絶對主義를 排除하는同時에 經濟學을 倫理的政治科學으로 引上할것을力說하엿스며 이思想은 슈몰레르에일으러 더욱 徹底한相對主義 倫理主義로結晶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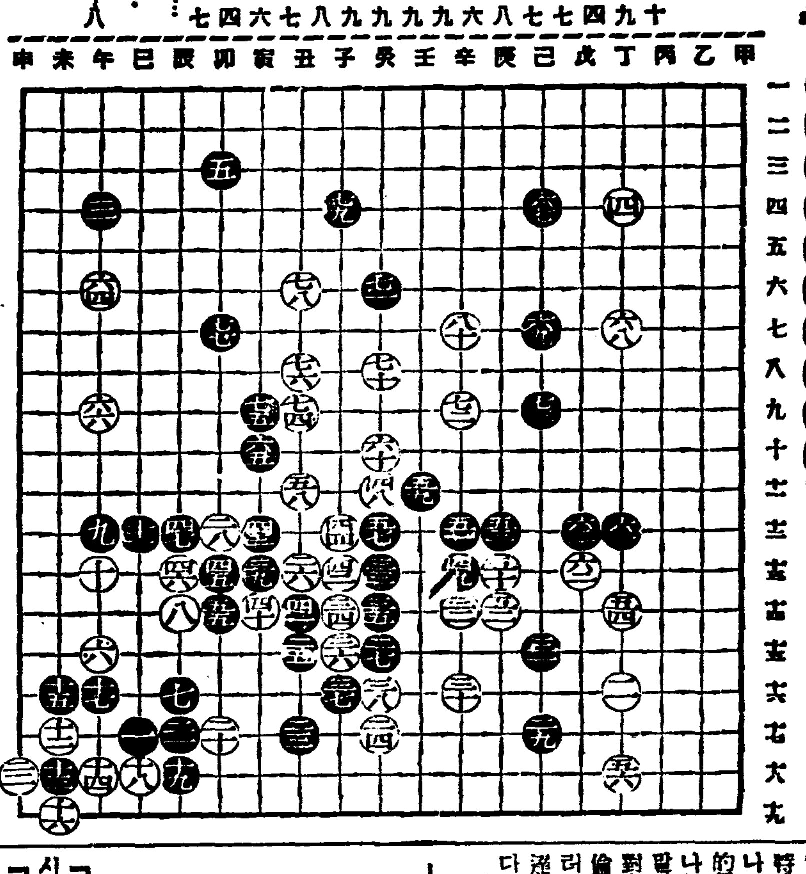
따라서 歷史學派가 想定한經濟秩序란 各國民에따라 特殊한性質을갓고 發展段階에 따라 特殊한形態를갓고 發展하는것이 나 그는또한 人間의 倫理的政治的行動의 特殊的表現形態로나타나는것이 되지안흘수업다. 다시말하면 經濟關係로表現된 人間의 社會的關係가 國民的 倫理的關係로나타나며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歷史的으로 發展하여나가는것이 되지안흘수업다.

따라서 嚴密하게말하면 歷史學派의立場을徹底化하려면 經濟學에서 法則定立을排除하고 經濟學은 說明科學에서 記述科學으로되지안흘수업는것이다. 다시말하면 經濟學은 歷史的記述科學으로서 把握하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내가 이러케말한다하여서 決코 歷史學派의學者가 모두다 法則定立을 否定하엿다는것은아니다. 學者에따라서는 多分히 法則定立을否定한 『히르데브란트』나『부헤르』와가든사람도 잇섯다. 그들自身도 各各所謂『段階的進化法則』이라하는것을 發表하엿다. 그러나 그들의 法則定立은 論理的不徹底를表白한데 지나지못하는것이다.

歷史學派는 메ㅇ케의抗辯에도不拘하고 事實에잇서서는 經濟學을 보기조케 記述科學으로 貶黜하엿다. 그것은 무엇보담도 그들의硏究方法에서 結果된 必然的歸結이다. 그들은 古典學派의 理論이 絶對主義로 결가티 高調하엿다

國手爭覇譜 (5)
本社獨占

白 盧史楚
黑 丁奎春



●	六五	寅의十
○	六六	午의九
●	六七	己의四
○	六八	丁의七
●	六九	己의七
○	七〇	癸의八
●	七一	癸의六
○	七二	辛의九
●	七三	己의九
○	七四	丑의九
●	七五	寅의九
○	七六	丑의八
●	七七	卯의七
○	七八	丑의六
●	七九	子의四
○	八〇	辛의七

…死點…

● 八三 未의十八

取勢와取實하는 兩家의棋風相異
黑의外勢는堅固하나 局勢飜覆은尙可豫想

前回의 白六十四 午의六은嚴潤無匹한 黑의 領土를 侵入하는 一種의 侵略政策이바이때에 黑은 이白의侵入을 不足畏라고해서 輕視하엿는지그러치아니하면 中央의 白軍을노리는 前哨인지모르나 六十五를 寅의一〇으로갓다。그러나 厖大한 手順으로말하면 寅의一〇 一目으로 白의 中央軍이 一擧에殲滅되지아니하는限에는 寅의一〇을 純全히白中央軍의 捕虜策이라고 보기는汗漫한嫌이업지아니하니 그것보담은차라리 午의八로가서 白의午六으로하여금 脊根을하지못하게하엿든들 白은 午의六을包陣하라고 不遑他念하든 동안에 黑의 西邊角陣地가 不秀而崩할것인데 寅의十으로가니 白이 그틈을 타서 六十六을 午의九로 벌니면서 敵陣中에서 自陣의 盤根著節이 容易하게되엿다。그러니 黑은 그로 부치는것은 六十七을 己의四로 報復策으로 東角의白을牽制하려는 意圖인데 그러타면 우리는 여기서 이己의四着한 번吟味해보는것도 적이 興味잇는일일듯하다。왜그러냐하면 東角의白은 南으로 牽制하면 北으로 進出할것이고 北으로牽制하면 南으로 다라날수가 잇게스리 進路伸弘한즉 어느一方的牽制로서는 白의 進路를 遮斷할수업는以上 旣往牽制하랴면 己의四보담은 丁의七으로 먼저 牽制를하엿드면 東北邊白은 南邊을 占하드래도 最小限度 黑의領土가 또한 不秀而得으로 벌어질수가잇섯는것인데 己의四로가니 白은 六十八을 丁의七로 北邊에 上進하기를 다시말하면 丁의七은 一擧兩得의格이 잇서 己의四는 一擧一得밧게안되는셈이다。그러나 黑이 六十九를 己의七로追擊하니 白은 東角의陣地보담도 中央의大軍이 包圍中에 들것을 念慮해서 무엇보담도 中央陣勢의 收拾에 汲汲하니라 고 手順에따라 白八十 辛의 七까지이르고보니 外勢는 黑의 獨壇場이된 느김이업지아니한데 丁奎春氏는 본래 取勢를 爲主로하고 盧史楚氏는 取實을 爲主로하는 兩家의棋風이 相異한 所致라고하겟스나 果然 今後의 局勢는 어떠케 進展되려는가? (赤松子觀戰記)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五)
玄德 作
洪祐伯 畵

『뭐 어덜가슈 가만안저서 노시지안쿠』

『요기좀 갈데가 잇서서』

『며 안저서노슈』

그러나 털보는 아버지가 누엇든 자리에 요를 어퍼깔고다리를 괴고 안는다. 그는 두루마기를 벗고 노마어머니는 소박귀에 초불을 부친다. 방안은 갑작이 환해진다. 아버지가 털장에서처럼 히롱치안는다. 그러나 털보는 맥적게 노마를 보드니 이끄러 가까이 안친다. 노양복주머니에 손을 너트니 노마 머리우에 무엇을 엇는다. 남북이 나온 장구머리다. 눈을 히번덕이며 머리를 젓는다. 감찬 파자 한짝이 떠러진다. 노마는 짐숫 놀란다. 털보는 호호 웃음으로 못는다.

보로 밧귄 변화보다 노마는이것이 더 크다。오목 구석으로 번쩍으로 난대처럼 스스러진다。도리여 제집에 안즈듯이 털보는 스스럽지안타。초울 부친 소반에 김치보시기 새우젓 접시의 술상을 차린다。어머니는 말여시 술을 딸코 말여시 털보는 바더 마실따름 전일 선이 나온다。밥이 나온다。담배 딱지가 나온다。나종에는 손바닥이 딱 머리를 따리고 『손대지말구 떠러트려바라』『떠러트려바』 머리를 젓는다。압뒤로 끄덕인다。떠러지는것이 업다。빗방이다。동떠러진 우숨소리가 잡시와자하엿다。꺼진다。더심심해진다。얼룩얼룩 얼골만서로 보다가 털보는 문득 『요새 굳밥 조른타。너좀 사오겟니』 『어디 국수집 말이지』 『차리전거리 구두ㅅ방압 탑야 거기밤이 굽고 만든타』 하고 어머니가 가루착다。거기는 길도 서룰르고 또 밤이 무서붓다。그리고 노마는 거기말고도 근처에서 얼마든지 구할수잇는것을 먼대를 가야하는 불평도 잇당。두사람을 번가리보며 구원을 청한다。어머니는 눈을 흘이고 털보는 외면을한다。

쪽에 가의를 놀이는때처럼 밥거만 갓다。거좋을 뗏이 노면 늘로록 오금이 붓고 개천에호방울 빠지가 겁어대면 모두 건너뛴는 우물합 골목길이 더그러타。골목을 빠지면 큰길 거기서부터는 가로친대로 올르면으로 가기만하면된다。그러나 급기야 구두방아메서 굽는 밤은 도리여 잘다 면번이고 지내놋코오것이 굵고 만듬성싯다。노마는 다시 그런놈을 차저단인다。

도라오는길은 정말 무서운밥이된다 컴컴한 골목에서 밝은 거리로 나올때보다 밝은대를 버리고 컴컴한 속으로 드러가게 되는 무서움이란 또 유별하다。노마는 우물합 골목을 드러선는 길은 개에게 들키지 안흘려는 거처럼 가만가만 발자최를 죽인다。그러나 발소리보다 더 똑똑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반대로 거슬게 발을 구른다。목청을 뽑아 『순풍에 돗을 달고……』 마음편 양철집웅을 울리는 그 소리가 또 노마 아닌딴 목청가터 무섭다。

이런때 한번은 허연것이 전선주뒤에서 나와 아꿀 막엇다 커다란 손이 억개를 잡어끈다 가풍및 가까이 왓다。아버지다 『더러다。그거 버려라。버려』 까닭을모르게 아버지는 사지를 부들부들 떨도록 노하엿다。노마는고개를 숙이고 종이봉지를 발아래 떠러트린다。아버지는발로 차 개천으로 굴린다。몃개 길바닥에 흐터진것까지 발로 뭉갠다。퉤퉤 침을 뱃고 더러운 그물건에서 멀리하드시 노마의 팔을 이끈다。집파는 반대로 언덕 저편뒤 사정 잇는편으로 향해 길을 더듬는다。아버지는 숨이 가빠 허허한다。러저나오는 기침에 몸을 오그린다。사정및 아까샤나무아래 이르자 그는더 것지못햇다。나무에 몸을 실리고 느러트리고 서서 굵은 숨을 내쉰다。노마는 조마조마다음에 이러날 행동을 기다리며 발발 떤다。아버지는 호흡이차츰 조마들며 평조로 까러안는다。그러나 웃죽이지안는 아까느때까지나 한가지 아버지는 어샤나무와 한가지 미동도 업다。거슬게 들고나는 숨 그것때문에서 이 모두 풀리엿는지 모른다。노마는 좀 싱거워진다。아버지가 목연히 나려다보는 컴컴한 바다 저편에는 등대가 잇다금씩 끔뻑일뿐 밤은 괴괴하다。

律管의解說 (四)
李王職雅樂師長 咸和鎭

相生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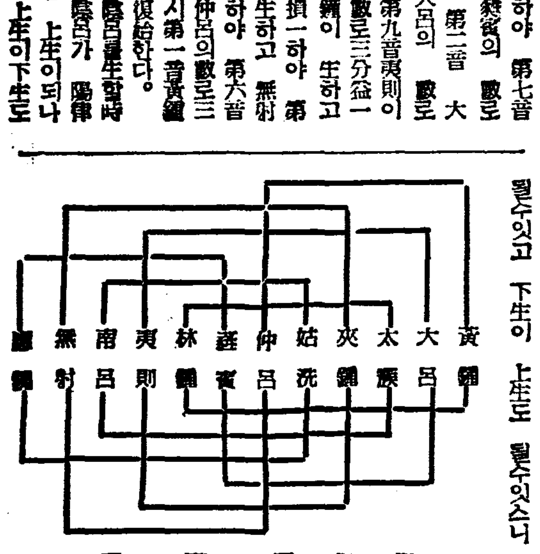
黃鐘律管은 累黍法에依하야 尺度가決定되고 다시候氣法에依하야 完全한黃鐘律管이 確定됨으로 이것을基礎音으로하야 이黃鐘管으로써 다시損益法에依하야 十一律을決定하게되엿스니 其決定하는法을 律呂隔八相生法이라한다

相生法은 黃鐘을第一音으로하야 數學的으로 分解하고 여기다가 損益法을加하엿스니 卽黃鐘管의 長九寸을 三分하야 三寸數를除한後에 다시音長九寸에서得數三寸을減하면 殘數가 六寸이되나니 이것을 三分損一法이라하고 殘數六寸은 第八音林鐘이生하고 第八音林鐘律이되나니 이것을 下生法이라한다.

다음에는 第八音林鐘管의 長六寸을 三分하야 二寸數를得한後에 다시管長六寸에다 得數二寸을 加하면 計數가 八寸이되나니 이것을 三分益一法이라하고 殘數八寸은 第三音太簇律이 되나니이것을 上生法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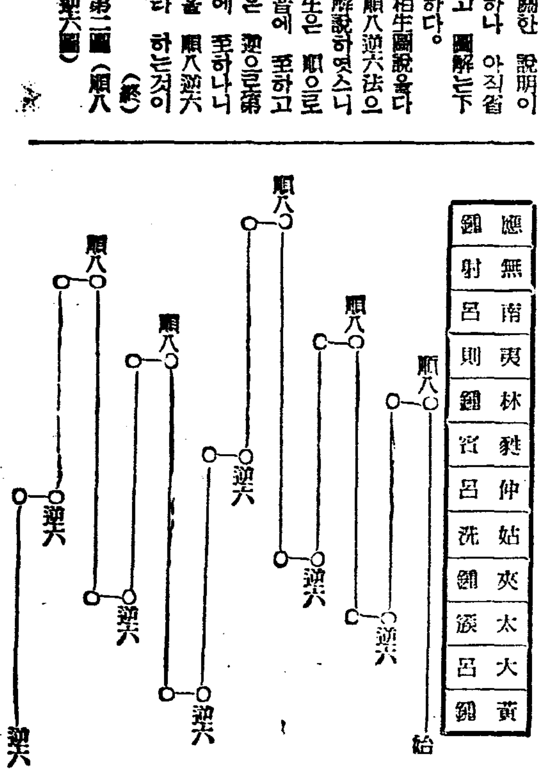
十一律의 相生法은 以上의乘算法과가티 太簇의數로 三分損一하야 第十音南呂가生하고 南呂의 數로 三分益一하야 第五音姑洗이生하고 姑洗의數로三分損一하야 第十二音應鐘이生하고 應鐘의數로三分益一하야 第七音蕤賓이生하고 蕤賓의 數로 三分益一하야 第二音 大呂가生하고 大呂의 數로 三分損一하야 第九音夷則이生하고 夷則의數로三分益一하야 第四音夾鐘이 生하고 夾鐘의數로三分損一하야 第十一音無射이 生하고 無射의數로三分益一하야 第六音仲呂가生하고 仲呂의數로三分益一하야 다시第一音黃鐘을生하야 周而復始한다.

此는陽律이 陰呂를生할時는下生이되고 陰呂가 陽律을 生할時에는 上生이되나 蕤賓에依하야 上生이下生도 될수잇고 下生이 上生도 될수잇스니 여기에 關한 說明이 許多하나 아직省略하고 圖解는下와如하다.



相生圖 (第一圖)

此相生圖說을다시 順八逆六法으로 解說하엿스니 卽下生은 順으로第八音에 至하고 上生은 逆으로第六音에 至하나니 이것을 順八逆六法이라 하는것이니라 (終)



第二圖 (順八逆六圖)

新刊紹介

▲朝鮮鑛業の趨勢 昭和十一年 發行所 京城府南米倉町四 朝鮮鑛業會 振替京城四七〇六番 定價七十錢送料四錢

▲批判 第一四一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批判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〇番 定價一部六錢

▲가뎡소식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二五五〇番 定價五錢

中將湯

出嫁前의處女와新婦의에게示敎

大理石은어대까지라도大理石
—그러므로— 健康美를—

近來에는 젊은婦人의化粧이 아주巧妙하게되엿습니다 自粉이라도옛날과달라, 肉色, 小麥色, 마치自然대로의 皮膚와가튼 色彩를바르고잇습니다

(입술·연지) 도예낭은분홍색에 지바게어엿습니다마는 近來의루-주로는 푸르게 빗나는엷은 제절로붉은듯이발려집니다

그러치마는 정말그러한色이 自然—自然이라고 말할수잇슬까요 눈부시는 紅燈아래서 얼는 바라볼때는 모르지마는 낫세太陽의光線下에서 자세히 드려다본다면 아모리익숙하게한 化粧이라도 亦是化粧은 어데까지든지化粧으로서의 價値바게업는것입니다

(應·接) 男의大理石美人像이아모리 아름답다해도, 그것은 차가운美의 形容밧게안됩니다 아마 大理石의美人像이 그대로산 人間이 된다면 그는魅力으로 될일은만무한일입니다

(出·嫁) 前의處女, 出嫁하서얼마 아된新婚婦人들게 筆者는 衷心으로 忠告의말삼을 드리고저하는것은, 여러분께서 化粧에 專念하시는게 로나뿐아니다는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케힘드려하신化粧이 만일에 젊은 男性에對해서 이편에서생각하는만치의魅力을 느끼게 하지못한다—무엇을爲한努力일까— 라는結果로됩니다

(生·生) 한健康色—여기에비로소 處女의香氣, 新婦의자랑이 잇습니다 月經이不順할경우, 新婚으로 맛는 心身의 變動에서 이러나는 疲勞、이러한것을 곳健康色을흐리게하는 敵입니다 이敵을追放하는方法으로서는 一時的으로 숨겨버리는化粧보다도 먼저저有名한中將

(中·將) 湯이月經不順을調整하는 功効가 잇고 婦人의 疲勞된身體에 元氣를북돗주는作用—이것은 이미今日까지 幾十萬人이라는것보다幾百萬人의實驗者가 事實을證明하고잇는 問題이므로 새삼스러히 紙上에서 여러말슴드릴必要는 업슬줄압니다 香氣조코 먹기 조흔中將湯을 잡수셔서 體力根本을 改造할생각을해주서요

—主効—
逆上·めまひ 上氣·月經不順 下腹痛·子宮病 ヒステリー 冷え性·こしけ

(價定) .20 .50 1.00 2.00 3.00 5.00 10.00

本舖 東京市日本橋區 津村順天堂 支店 大阪

魅力의焦點은 어데일까요

趣味娛樂

試寫評 「最下層」

고ー리키ー原作루노아르監督
一月十三日부터黃金座에서上映

「最下層」은 文豪고리키ー의 原作으로 더이야기할必要조차업슬만큼 有名하다

이原作은 貧民窟의下宿屋을 舞臺로한戲曲이므로 이것을 映畵化시킨다는데는 效果問題가 대단히困難한것이엿다. 그래서 이大作을 佛蘭西의進步的新進監督 짠·루노아ー르가 어떠케 改作할것인가하는데對하야 世界映畵界의 物議를이르켯다. 이것은非單 映畵界만이 아니라 文壇에서도 큰期待를 가지고잇드니이다。

이作品을 스크린에서 對할때 루노아ー르의 手法에 놀라지안흘수업섯다 舞臺의 變化가 적은 이原作을 그는엄청나게 改作하얏다 이것은 無理도아니엿다。映畵로서의 成立을 보랴면 이러케改作치안코는 不可能한일이엿스나 그러타해서原作에 忠實치안흔것도 아니엿다 그의 手法이빗난다면 原作에 忠實하면서도 寫實로꾸민다는 여기에엇다 映畵로서의 要素를가지도록 하는것ー이것이 世界映畵界와 文壇의 …… 루노아ー르는 成功하얏다。

혼히 大衆化되지못할 性質을 가지기쉬운 文藝映畵를 이처럼 재미잇게 만든다는것은 루노아르가아니면 不可能한일이라고본다. 出演한 演技者가운데는 우리가 일즉이 親해저잇는 페페르로 扮裝한 짠가반과 男爵으로 扮裝한 루이쥬ー바나ー라ー샤로 扮裝한 쥬니ー·아스를等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演技를 보여주엇다

(一月十三日부터 市內黃金座에서上映)

第一放送

十四日(金曜)

◇午前一○時三○分 料理製法 〃두부찌개〃

◇午後零時五分 베이올린과피아노소나타A長調 作品一六二 슈ー베르트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모데라ー토 第二樂章소케르쏘 프레스토 第三樂章안단티노 第四樂章알레그로뻬삐ー채 삐아올린 J·F·훗스 피아노 J·B·스투데니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페인텍스이야기』 李恩錫

◇同六時 라듸오學校 『六甲知識』 黃義敦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復習時間 國語(一) 咸瀷默

◇同七時四○分 新民謠 一、사발가 二、아리랑 三、도라지 打鈴 四、에헤라靑春아 五、가슴에지는꽃 伴奏 DK管絃團 金仁淑

◇同八時 歌詞 一、黃鷄詞 二、乾坤歌 大笒 文明仙 杖鼓 李英子 古談 金一永 金國祖 申靑瑞(?)

◇同八時三○分 (城)長唄 / (東)이야기 / (東)支那語 / (東)唱歌 / (東)時事解說 ◇午後零時五分 ◇同六時 ◇同六時二五分 ◇同七時三○分 ◇同七時四○分 ◇同九時

◇午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滿) 講演

◇同七時三○分 (東) 講演

◇同七時四○分 (東) 講演

◇同八時 (〃) 謠曲

◇同八時四○分 (〃) 合唱

◇同九時 (大) 코ー트

◇同九時 御郞等敎調와俳唱 一、敎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악 二、俳唱 가、丈夫歌 나、瀟湘八景 指揮 深井史郞 管絃樂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五分 唱歌 천下太平 二、唱歌 토기打鈴 歌手 宋萬甲 丁元燮

◇同九時○五分 一、九關歌 二、念佛 三、打鈴 長歌 四、扦鳥 白牧丹 朴丹 閔錦紅

肅黨의餘波?

메이엘호리드劇團解散

演劇革命의 急先鋒으로서 世界新劇運動에 多大한 影響을 끼친 메이엘호리드劇團은 今番 反蘇的傾向의理由로서 聯邦政府直屬藝術委員會로부터 解散命令을밧고 一座의俳優는 다른 劇場에 分割되며 메이엘호리드氏自身의 演劇活動을 今後 許하느냐 안하느냐는將來 審議하기로되엿다。劇團의 反蘇的傾向으로서 드는여러點은다음과갓다。

一、同劇團은 부르조아形式主義의立場을 脫却하지못하엿다。그리고 左翼的粉飾만하기때문에 로서아古典劇 고ー고리의『檢察官』그리보에ー도프의『智慧의悲哀』其他의 上演에際해서 非藝術的 誤謬를 犯하고 思想의革新을歪曲하엿다

一、同劇團은 蘇聯劇作家의作品上演에完全히 失敗하엿다『自殺』『시골의꿈』其他의上演에當해서 蘇聯의實情을 歪曲하엿다。

一、同劇團은 最近數個年蘇聯의指定物을 上演하지안코有力俳優가 離反할뿐아니라 最近革命二十周年記念에 何等의 開催도업섯다。

十三日(木曜)

◇午後六時童話劇『鐘소리』三景 童心會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作과指導 朴興珉

◇同六時三○分 經典解說『直指人心見性成佛』 金泰洽

◇同七時四○分 講演『列强과國際情勢』

◇同八時一○分 一、小春香歌 二、執杖歌 三、平壤歌 東亞日報 高永煥 尹一枝蓮 朴玉姬

◇同八時四○分(東) 管絃樂(現代日本音樂第一回) 深井史郞作 파로듸的인四樂章 一、파리아 二、스트라빈스키 三、라벨 四、룻셀

十五日(土曜)

◇午後○時五分(東)土曜콘서ー트 (第九回) 一、카르만名曲集 프아이겔編曲 二、合唱 (가)淸靑한도나브 요한슈트라우스作曲 (나)브다페스트 케니히作曲 東京放送交響樂團 指揮 久岡幸一郞 合唱 오리온코ー르 管絃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食物의溫度와榮養』 金浩植

◇同六時 라듸오스켓치『겨울방학日記』 一、설날 二、기차노리 作과指導 林鴻恩 伴奏 林마리아 참새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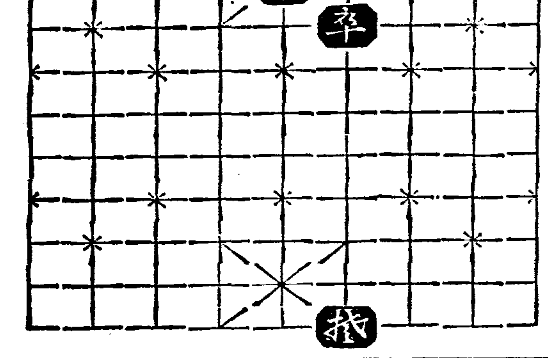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復習時間 算術(一) 崔昶元

◇同七時四○分 趣味講演『趣味와流行』 朴

◇同八時一○分(平) 獨唱 一、시드르옷·슈ー베르트作曲 二、驛遞 同 三、봄노래 멘델스존 四、歌劇『마르타』中에서 내나이어렷슬때 플로토우作曲 五、歌劇『돈·죤빤니』中에서 모ー차르트作曲 伴奏 李喆卿 獨唱 鍾泰浩

◇博譜大集 62 【昨題解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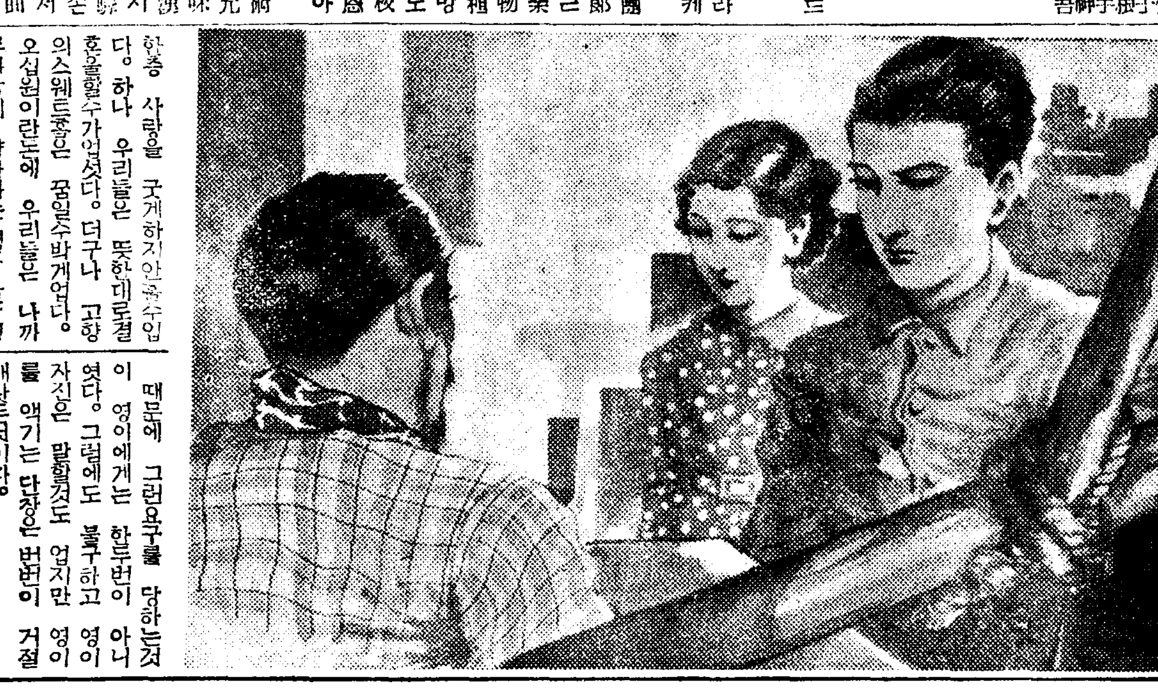


二卒—二三 / 三包—三—三二 / 四—四士 打 / 五漢—四包打 / 六卒—五呼將 楚勝

(博譜係)

新春懸賞入選童話 호랑이써ー커스 (三)

林正華作 江湖畫



영이는 볼더러 옵바라고불럿지만 우리들의 사이는 남매간에서만 머저지지는 안헛다。우리들은 어느사이에 벌서 우리들의고향인 묘향산미테 일으워질 스웨트·홈을 꿈꾸고 잇섯든것이다。

눈물겨운 써ー커스의 고난을 우리들은 우리들만이아는 고향의사투리로 서로위로하엿고 이것이 마츰내는 연정에까지 잇끌리지 안흘수업섯든것이다。

『우리두 꼭한번 묘향산의 고사리를 꺼그면서 살아보자우요。옵바는 벌판으로 농사하러 나가구 우물에 동이를니구서 물길러 가구……점 조켓수?』

시골의 소박한 정조를잇지안흔영이의가슴은 산골의 맑은샘물처럼아직흐리지안흔것이다。거리로 드립베人을 아모꺼리김업시 불고단니는 영이가 이렇듯 순ㅅ된꿈을 안고잇섯든가 생각하면눈물겹지안흘수업다。그래 우리들은 꼭쌀어안고 운다。이것이더 한층 사랑을 굿게하지안흘수업다。하나 우리들은 뜻한대로결혼을할수가업섯다。더구나 고향의스웨트홈은 꿈일수밧게업다。

오십원이란돈에 우리들은 나까무라상의 약사다는 명목으로 영원한 자유를 일흔몸이다。때문에 단장의 단원들에게대한 풍기감시는 여간심한게 아니다。

혹 단장의약해를어더서 결혼을할수업는것은안이나 우리들의 경우는 그와는 다르다。그것은 영이와 내가 단체를 유지해나가는 스타ー이기때문이다。인기역의 비애인것이다。

나와 영이와의공연인 곡줄그네와 호랑이등에올라서 춤을추는 곡예는 기후자로써는 도저히 지금처럼 날人세이고 아름다운 균형을 잡을수잇는 포ー즈는 어들수업는것이다。더구나 영이가 어렴애를 배는날이면 대역여우조차 어들수업다。이런단순하면서도 중대한리유에서 단장은 우리들의결혼을 거절하는것이다。그러나 우리들의 청춘을 써ー커스의 제물로바칠수는 업는것이다。

그래 나와 영이는 기회와태도를 고처서 멘번이고 멘번이고 단장에게 결혼시켜주기를졸라보앗다。하나 구레나릇 단장은 한결가티 기회를 기다리라는것이엿다。그기회란 언제나피하기조흔 단장의구실인것을 몰올우리들은 아니다。

더구나 지나간겨울의 그무서운 일을당하고는 더욱마음이초조하지안흘수업고 일이손에붓지안헛다。

겨울은 천막가설임으로 치위로해서 손님이덜올거니와 더욱 생명프로인 영이와나와의 곡예가 영이식엇슴으로 손님을 마저하폇을하고 도라가는형편이 오래게속되엿다。그래 오늘벌어서내일먹는 형편인 나까무라상의 흥업은 결국、파정이오고마럿다

그때파로론연하고、만주까지 따라왓든 사나이가 재졍난을 원조하는 대상으로 영이의 몸을 요구햇든것이다。이런부류의 사나이가 영이를탐내는것은 무리가아니다。셈뿐인 여배우중에서 권의자리를 추대받는뿐아니라、그미묘에서도 영이가 제일랍스러웟슬것이다。

때문에 그런요구를 당하는것이 영이에게는 한두번이 아니엿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자신은 말할것도 업지만 영이를 액기는 단장은 번번이 거절해왓든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단원의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엿다。나까무라상도 할수업시 그요구에 응할수밧게업섯든것이다

영이는 울면서 내게로 달려왓다。그래 내가 푼푼이 모하두엇든 돈과 영이의것을 모하서 (그것은 영이도 나도 약속한바는 아니엿스나 우리들의신혼생활을 장식할 아름다운 꿈의저금이엿다。)당면한 재졍란을 버서날수가잇섯다。하나 언제어떠케 될지알수업는 생활의 써ー커스임으로 어대로 구울지알수업는일이다。무어나 안그런것이 업겟지만 더욱이 곡예라는것은 출연배우의 기분문제로써 좌우되는것이다。그러니 무대에나서는 내마음이(영이도그러켓지만) 점점불안해만 가지안흘수업다。공중 그네를 뛰는것은 땅에다 구울을 바첫스니까 섯사 떠러지는 경우가 잇드라도 기절이나하는 정도이겟지만 호랑이의 위험은 마음이 약해질사록더욱 커만가는것이다。

中部版

出生한人口가 死亡者의約倍

【開城】 부만사하는 개성인구 중 작년일년간 생사기별(生死)의 무상변천은 어떠한가하고 조사해보니까 출생이 이천구십명 사망이 일천사십사명이 다 이가리 ... 에서 오고가는 무상한세태속에 결국은 출생인구가 죽어의 배수로써 일천사십육명의 증가를보엿다 그러고이외에 백년가약을 굿게맺은 원앙의짝이 오백팔십칠쌍이며 파경(破鏡)의 비탄속에 리혼한 남녀가 어십오명이라한다

市內公普入學志願者의 戶籍對照日割決定

指定된日字에指定된町會에서出頭對照

十五日부터京城府에서

경성부내에잇는 여섯개공립보통학교의 소화십삼년도제일학년 입학지원자의입학원서는 기보한바와가티 오는 십오일부터 각기 그아동의부형이 거주하는 정회(町會)를통하야 접수하기로 되엿는데 경성부호적계에서는 다음과가튼입학원서에따라서 입학지원아동의 호적대조를하도록하엿다한다

公立普通學校一學年入學志願者 入學願書對照日割表

▲一月十五日 梨花町 忠信町 鍾路六丁目 惠化町 ▲十七日 東崇町 明倫町一丁目 明倫町二丁目 明倫町三丁目 明倫町四丁目 蓮建町 ▲十八日 苑南町 孝悌町 蓮池町 禮智町 仁義町 ▲十九日 鍾路四丁目 鍾路五丁目 齋洞町 ▲二十日 桂洞町 嘉會町 苑西町 雲泥町 臥龍町 ▲二十一日 勸農町 安國町 三清町 八判町 ▲二十二日 花洞町 昭格町 司諫町 壽松町 堅志町 松峴町 ▲二十四日 樂園町 益善町 [illegible] 寬勳町 ▲二十五日 仁寺町 公平町 敦義町 鍾路二丁目 授恩町 清進町 ▲二十六日 光化門通 瑞麟町 都染町 中學町 唐珠町 鍾路一丁目 西大門町一丁目 ▲二十七日 渼芹町 新橋町 宮井町 孝子町 昌成町 通仁町 通義町 玉仁町 ▲二十八日 積善町 內資町 樓上町 樓下町 ▲二十九日 體府町 弼雲町 社稷町 ▲三十一日 內需町 貞洞町 西大門町二丁目 橋南町 平洞町 松月町 西小門町 ▲二月一日 紅把町 杏村町 ▲三日 峴底町 橋北町 ▲四日 [illegible] 玉川町 ▲五日 義州通一丁目 義州通二丁目 漢芹町 天然町 蛤町 冷泉町 竹添町一丁目 竹添町二丁目 ▲七日 竹添町三丁目 中林町 ▲八日 蓬萊町三丁目 蓬萊町二丁目 蓬萊町四丁目 ▲九日 西界町 並木町 東四軒町 光熙町一丁目 光熙町二丁目 ▲十日 黃金町五丁目 黃金町六丁目 黃金町七丁目 初音町 花園町 新町 本町五丁目 西四軒町 芳山町 櫻井町二丁目 櫻井町一丁目 本町四丁目 黃金町四丁目 大和町一丁目 大和町二丁目 ▲十二日 黃金町二丁目 水下町 長橋町 水標町 南大門通一丁目 南大門通二丁目 明治町一丁目 明治町二丁目 三角町 鍾路二丁目 ▲十四日 舟橋町 林町 長沙町 觀水町 笠井町 ▲十五日 貫鐵町 永樂町一丁目 永樂町二丁目 本町三丁目 若草町 黃金町三丁目 本町一丁目 本町二丁目 長谷川町 旭町一丁目 旭町二丁目 旭町三丁目 南山町一丁目 南山町二丁目 南山町三丁目 壽町 倭城台町 ▲十六日 黃金町一丁目 武橋町 日出町 太平通一丁目 太平通二丁目 北米倉町 和泉町 南大門通四丁目 ▲十七日 南大門通三丁目 南大門通五丁目 蓬萊町一丁目 南米倉町 御成町 古市町 吉野町一丁目 吉野町二丁目 ▲十八、十九、廿一、廿二日 阿峴町 大峴町 ▲二十三日 老姑山町 滄川町 東幕町 延禧町 ▲二十四、二十五日 北阿峴町 ▲二十六日 新村町 峯元町 弘濟町 新營町 付岩町 ▲二十八日 城北町

十九名青年의鮮血로 그리여진日章旗

長文의慰安文과淨財와함께 ―春川保安組合員이獻納―

【春川】 지나사변(支那事變)이 폭발하자 각종의 총후미담이 속출하야 출전군인으로 하여금의 기를 충천케하는데 금번춘천에 공전의 총후미담이 나타낫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춘천군남면 광판리(南面光坂里)에거주하는김 광영(金光泳)(三〇)은 춘천보안 리의 중심인물로 활동중이엿든 바 사변발생후 시국강연기타에 감격되여 지난일월일일을 택하 야 동리동지(同志)십팔명과합심 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근로봉 사(勞働奉仕)로 생업보국(生業 報國)의 진의를 나타내기로결 심한후 시랑을하여 일금삼십원
을만들고 그날으로동지들이 한 자리에모여서 자기네의 끌는열 정의 만분지일이라도 나타내기 위하야 장 이 넘자여덟치 폭 일환(日丸)을 십구명의 선혈로물 드리여 장문의 위문문과 전기 지금십삼원을 조선군사령관(朝鮮 軍司令官)에게 보내달라고 춘천 경찰서(春川警察署)에 간곡한부 탁을 하여왓슴으로 일반은 크 게 놀내며 만흔충동을 바닷다 는데 선혈(鮮血)의 일장기(日 章旗)와 간곡한 위문문급헌금 은 정식수속을 밟버보내리라 고한다

防疫、保健中心으로 防疫陣徹底强化

傳染病이減少된京城府內의 六署衛生主任會議로

『전염병도시』의 루명을 오래 동안 쓰고잇든 경성시내의 전 염병발생수가 작년중에는 격감 을 한데 키운을얻든 시내 여 섯경찰서 위생주임은 십삼일아 츰 열시부터 경기도위생과장실 에서 새해첫번의 위생주임회의 (衛生主任會議)를 열엇는데 경 성부위생과장도 참석하야 방역 (防疫)과 보건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가튼 사항을 협의하야방 역진(防疫陣)의 강화를 도모한 바잇섯다

一、작년중에 전염병발생수가격 감을본 호성적을 금년도 지 속하도록 방역에 힘쓸일

二、일반에보건사상을 철저히가 지도록 선전할일

三、수일전 도위생과에 방역주 임(防疫主任)으로 경부한사람 을 두엇슴으로 그와긴밀한연 락을취할일

三、작년시월에실시된 오물소제 령에의하야 전염병발생의 근 원이되는분뇨 진개의 처분을 일층엄중히 감독려행할일

老乞人이囊中털고 삭바누질로獻金

伊川郡愛國美談兩題

【伊川】 지나사변 발생이후 일 반국민의 사변에 대한 인식과 총후의 무거운 책임에 대하야 미담이 뒤를이어 날이갈사록 점 차로 늘고잇는데 동냥주머니를 털러바친 거지의 갸륵한 미담 도잇다

一、본적을 강원도 회양군안풍 면 상세리 (淮陽郡安豐面上世 里) 에두고 팔십구세의 늙구 로인이 부양할사람이업서 이 리저리 유리걸식하다가 금번 이천군 방장면원리 (方丈面 院原里)를 지나다가 황군위 문회를 조직하고 절미로써보 국한다는 말을드른 거지전동 호(田東浩)가 동냥주머니에서 출정한되를 털러노코 이것으로 써 황군위문금으로보내여달라 고방장면장에게 기탁하엿다는 거지의애국열은 일반에게감명 이될것이라고하며

二、로태의 시부모를 봉양하며 타관으로 돈버리하러간 남편 의 도라오기를 기다리고서가 난한 살림사리를 하고잇는이 천군방장면가려주리(方丈面佳 麗州里) 제이구 신세호(申世 鎬)의안해 김성녀(金姓女)는가 려주주재소주최로 부인좌 담회에서 황군의 활동과 총 후에잇는 부녀자들의 책임에 대하야 기피 깨다른바잇서이 웃사람의 옷을해주고 사십전 을 황군위문금으로 보내여달 라고 가려주주재소에 기탁하 엿슴으로 일반부녀자에게 만 흔감격을 주엇다고한다

婦人囑託專任 軍人家族慰問

경기도군인후원회(軍人後援會)에 서는 응소군인가족의위문과상담에 는 여자가여러가지로 편의한점 이잇서 위문계(慰問係)의 전임 촉탁(專任囑託)으로 부인을채용 하기로되엿다

스리檢擧

【仁川】 지난십이일오 전한시쯤 부내송림정(松林町)사 십팔번지사는 무직 백기봉(白基 奉)(二一)을 인천경찰서형사가 검 거취조한결과 그는 현재절도죄 로복역중인 동정최기윤(崔基胤) 과공모하고 작년七월십이일 송 현정공설시장(松峴町公設市場)부 근에사는 리광순(李光淳)(六〇)의 족끼주머니로부터 현금일백이십 원을 절취한사실을 자백하얏다 는바 동서사법계에서는 여죄를 엄중히 추궁하는중이다

都會人은"肉食黨" 年末京城에屠畜激增

價格總計는卅三萬八千餘圓

경성도수장(京城屠獸場)의 지 난십이월중의 도축(屠畜)수를보 건대 소(牛)가 이천팔백칠십두로 서 그가격이 삼십만팔천사백원 이십전이고 도야지(豚)가 일천 삼백사십칠두로서 삼만육천팔백이십 이원육십전이고 말(馬)이 팔두 염소(羊)가 일두 그두수총계가 사천백오십이두이고 그가격총계 가 삼십삼만팔천팔백사원이다 전 년동기에 비교하야 삼십칠두가 증가되엿다

一年間의屠獸 約四萬頭多數

작년일년중에 경성도수장(京 城屠獸場)의 도축수(屠畜數)를조 사하여보면 소(牛)가 이만칠천 이백이십이머리이고 도야지(豚)가 일만사천백구십머리 염소 (羊)가 여덟머리 개(犬)가 이 백칠십머리로서 그총계가 삼 만구천이백구십머리 이고 그 가격총계가 삼백이십팔만오천칠 백사십원에 달하엿다

中堅青年을養成 更生部落을指導할

洪川農民訓練所에서

【洪川】 홍천군당국에서는 농민 훈련소(農民訓練所)를 설치하야 농촌중견인물을 양성에 적극적으 로힘을써오는바 졸업후 귀성하 야 각각활동하는것이 자못량호 함으로 일반의호평이 날로고조 되고잇다 그리고십삼 십사양개 년에 새로갱생부락에 지도 부락을 지도함에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적역이 가장중대시됨으로 군내각면에서 인물전형에 특히 주의를 환기하엿다는바 현재입 소생수는 이십삼명이며 상회의 졸업도 멀지안허보게됨으로 오 는이월중에신모(新募)할 훈련생 자격은 십구세이상의자로 군내 모집인원은 이십오명이라는데각 농촌의 중견인물중에 서로뽑히 이라한다

水桶속에嬰兒屍

流産? 産後棄兒?

開城署에서犯人을嚴探中

【開城】 지난십일일 부내 동문 리(旁東里)의 하수구 수통속에 서 고기장이 어린아이시체가 발 견되엿다 이시체는 고양이만한 계와한 어린아이로써 석구별도 기형이옵 얼마장이라한다 부의 기아(棄兒)시체나 아니면 류산(流産)이냐 하는 커다란 의혹을 던지고 방금개성서에서 엄탐중이라한다

平康上水道工事 酷寒中에도進行

導水路의一部는完成

【平康】 평강상수도(平康上水道) 는 대정십오년에 준공한후 『콩 크리트관』이파손되야 도수로(導 水路)의고장이 각금생기여 음료 수가부족하야 일반사회에서는불 안이 만하던바 본수도를 관리 하는 평강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를 개조하기로하고 작년팔 월일일에 총공비칠만원으로전 반수도를 개조하기로 되엿다함 은 본보에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우선금년부로 상수도 개축을착 수하고 년십일월부터 시작하얏다는데금 번에는 『규부강』을 사용케되야 영원히완전할것으로 전파가튼고 장이 업스리라하며 금번공사비 는 칠천여원으로 약 이개월만 에완성되엿는바 나마지 도수로 (導水路)의 각지선에대한 공사 는 아프로 작춤 계속하리라한 다 근년에드문 추위로 영하삼 십이도(零下三十二度)에 달하야 도저히 공사불능인데도 불구하 고 면당국에서는 평강에 정수 (井水)가업서 음료수가부족되는 평강주민에게는 유일무이(唯一 無二)한 생명수(生命水)가됨으로 만난(萬難)을 배제하고 착공(着 工)하엿다는데 평강면장 (平康面 長) 리한형(李漢亨)씨의 필사의 노력과 수도계원의 전력을다한 결과로 지난십이일부터 드되여 준공되야 금후부터는 음료수의 걱정이 업스리라하며 일반사회 에서는 면당국의 성의잇는 처 사에감사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陽曆으로첫市日 平康도無事經過

【平康】 평강번영회월례회 (平康 繁榮會月例會)에서는 고문(顧問) 최군수(崔郡守) 부전서장(富田署 長) 리면장(李面長)회장 박하룡 (朴河龍)제씨의 년말년시 (年末 年始)에대한 허례폐지를 단연폐 지할것과 시장일을 양력(陽曆) 으로 철저히실행케할것을 결의 하고 널리선전에 진력한다함은 본보에 기보한바어니와 이제년 말년시를 림하야 허례폐지를 철저히

酒造量二萬七千石 稅金만卅八萬圓

首位는燒酒오次位는濁酒와藥酒

開城管內昨年度集計

【開城】 개성세무서관내(開城長 湍坡州)각양조회사에서 작년일 년간제조한 소주, 약주, 탁주등 의총주조석수는 이만칠천사백여 석으로 여기해당한세액만이 놀 내지말라 이십팔만오천칠백팔십 여원이라하니 개성부내의 양조 업도 중요한사업중에 한손까 락꼽을수잇다고 보겟거니와 또 한 부민중에는 리태백(李太白) 파가튼 두주당(斗酒黨)들이 만 흔것도 미루워알수잇다 그런데 개성사람은 약주나탁 주보다 특히독한 소주를 조하 한다는것을 다음숫자를 조고롭 교해보아 능히 알수잇다

(酒類製造高) ▲燒酒=一萬五千石 ▲濁酒=一萬五百石 ▲藥酒=一千九百餘石 計 二萬七千四百餘石

(酒類稅額) ▲燒酒=二十二萬五千圓 ▲濁酒=三萬五千八百八十圓 ▲藥酒=二萬四千九百餘圓 計 二十八萬五千七百八十餘圓

酒類密造百餘件에 罰金만千餘圓

開城稅務署管內에서

【開城】 개성세무서관내에서 작 년일년동안 취체검거한 주류밀 조범의 총계는 일백오십여건이 며 여기에대한 벌과금(罰科金) 이 일천사백오십원이라는데 가 장밀조가심한지방은 파주(坡州) 방면이라 한다 그런데 이들은 타지방과가티 대규모의 밀조판 매업자가아니라 여름철 모내기때 나 혹은 추석명절 설명절가튼 때 한잔먹자고 막걸리몃술밥만 드려먹다가 이와가티 벌망에걸 닌것이 대부분이라한다

堆肥의獎勵로 農作四割增收

【平康】 평강군에서 퇴비장려에 대하야는 기보한바와갓거니 와 현내면(縣內面)에서는 일년 간일만여원 (農家一戶當二百 圓)의 비료대를 절약하엿다하며 본군군수(本郡郡守)의 산업지도(産 業指導)와 농가갱생(農家更生)의 근본책으로 퇴비증산(堆肥增産)을 적극적으로 지도장려 하여 지난십이년에 금비(金肥)를사용한 논보다 사할이상증수(增收)되 엿다하야 일반농가에서는 금년 을 각자하는일이면 면년에비하야 국의 지도장려에는 일반농가 지출이적고 수입이만하야 농가 에서 갱생의길을 찻게되엿다 야 크게깃버한다고한다

仁川第一回氷上競技

【仁川】 인천부에서는 오는십 삼일오전 열시부터 인천부공설 운동장 『링크』에서 제일회인천 빙상경기대회를 열기로 되엿는 데 참가선수의자격은 인천부내 에 재주하는 일반남녀자와 부 내각학교 재적자에 한한다는데 신청기일은 오는십륙일까지 신 청장소는 인천공립상업학교내 빙상대회사무소라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27】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송아산 (二十七)

배총석이는 한편다리를 아프 로 내세우고 얼골을 되들고잇 고 황천왕동이는 발뒤를 비틀 고 떤데를 보고잇고 길막봉이 는 어슬렁모양으로 몸을가지고

두리번거리고있는데 서림이 혼 자 두손길을 마잡고 공손히 허 리를 굽혓다.

『삼봉마마께서 해서대적(海西大 賊) 림꺽정이의 명자를 들어 기신지 몰으겟습니다만 저이 는 림꺽정이 수하에 잇는 두 령들이올시다』

서림이의 말한마듸에 방안에 잇는 삼봉이하 네명네들은 고

사하고 굿당안마당에 들어섯든 사내하인들까지도 모두다 놀라 는모양이 현저하얏다.

『이번에 림대장의 부인이 두 령의 안식구 다섯을 데리구 굿구경을 오는데 저이는 보 호하러 따러 왓습니다 보호

할 직책을 가진 저이가 한 만히 달은데 놀러간틈에 잡 놈들 십여명이 떼를 지어가 지구 와서 대장부인과 달은 안식구들을 때려눕히구 안식 구하나를 붓들어갓습니다 일 다난뒤에 저이가 비로소 알 구 그놈들 뒤를 밟아서 부 삼동을 쫏처가서 다 죽게됨 안식구를 차저왓습니다 그놈

들 십여명이 수만흔것을 밋 구 저이에게 대들다가 맷놈 은 중상하구 한놈은 죽엇는 데 [illegible]으니 죽은놈이 지금 송 도도사의 아들이랍니다 송 도부 금도군관이 곳 저이를잡 으러올줄 알면서두 대장부인 과 달은안식구 들이 광채운 신을못하는까닭에 엄는 피신 을못하구 이러구잇습니다 저 어가 올때 대장이 분부하기 를 대왕대비 치성굿판에서조 금이지라두 야료하지말라구 하섯는데 지금 사세가 큰화 파를 내지안을수업게되엇습니 다 저이만이면 뒤는 어지되 든지 순순이 잡혀가기타두하 겟는데 대장부인과 달은안식 구들을 군관의 손에 너흘수 가 업스니까 저이가 죽거나 군관들이 죽거나 끗장나두룩 싸우게되겟습니다 저이 네사 람에 저희나마 오족지안치 하 나는 고금에업는 석은뿐이요 또 하나는 비호가튼사람이요 또 하나는 악가그넷려에서 사람 공기 들엇다고 떠들든 천하 장사니까 적어두 열곱절 사 십명 사람을 죽이기전에는 저 이가 몸은잡히지 안흘겝니다 대왕대비 치성굿이 아직 꿋 두 나기전에 대궐당안에 못 사람의피를 흘리는것은 저이 의본의두아니요 더구나 저이 대장의 분부두아닙니다 대왕 대비 몸바더오신 삼봉마마를 리 말슴못엿줍는것이 황송해서 미 서림이의말이 거진다 끗난 뒤 놀라 가렷다 서림이가 말을 끈진뒤 한참만에 삼봉이 외면 하고

『쌈을 하더라도 굿당 테밧게 나가서하면 엇더소』

하고 물엇다

『대장부인하 여러안식구들이 저편 마루밧에 와잇는까닭에 여기를 떠날수가 업어요 또 굿당을 성(城)안삼아서 의지하 구싸우는것이 저이에게 유리 한까닭에 달은데로 갈수가 업 습니다』

『그럼 안식구들은 내가 담당 하고 잡혀보내지안흘테니 항 거들안코 잡혀가겟소』

『말슴하긴 황송하나 마마께서 담당하시는걸 저이가 미들수 가잇겟습니까 저이어피에 조홀 도리는 꼭 한가지가잇습니다』

『무슨도리요』

『마마께서 군관들을 이굿당안 에 들어서지못하게하실수가잇 지안켓습니까』

『군사를 내가 엇지막겟소』

『대왕대비의 몸을 바더오신 마 마께서 대왕대비의 치성굿을 하시는날이니 마마께서 누구 든지 굿당안에 못들어오다구 말슴만하시면 유수삿도라두감 히 발을 드려노치 못할겝니 다』

『그러면 엇더케한단말이요』

『저이가 오늘밤안으루 안식구 를 보면하두룩 조처해노코 박 는박전에 잡혀가겟습니다 그 러면 처벌은 무사이 끗나 구 마마께서는 목전에 사람 들 죽는걸 보시지안코 또 저 이는 저이의직책을 다하게될 테니 피차간에 다 조치안습 니까』

『나는 굿이 낫나면 곳 산 테로 나려갈사람이요』

『오늘밤 삼경까지만 여기서 주시면 저이조처두 그안에다 될듯합니다 그러구 굿은 아 프로 걸리드라도 뒷전이 남엇다 는데 두거리가 다 대단치안 흐니까 마마께서 친히 굿자 리에 나려가보시지안하두 조 켓습지요 하여든지 삼경까지 는 마마께서 잠시라도 이방 을 떠나실주연습니다 저이가 이번바게서뫼시구잇겟습니다』

다 대왕대비의 원당이란 검은최를 을부등이 삼봉이는 한다못한다 말이업시 갓가이가서 귓속말하듯 속은속은 여러말 을짓거리고 삼봉이 무수리하나 를 보고 나직나직 몃마듸말을 일럿더니 그무수리가 곳어좌지 게문을 열고 사내하인과 박수 를 내다보며

『마마말슴이어시다 누구든지 당안에 들어서지못하게하라시 니 그리들 아우』

하고 말하엿다.

●宿醉 ノーシン 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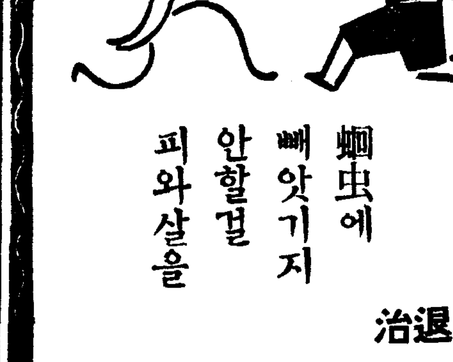
朝鮮藥律 藥種商講義錄 春季受驗期 見本無代進呈 京城鍾路四丁目五九 毒劇藥改正 朝鮮藥業研究社

急告 船用發動機安賣 中古品、最品アリ 20馬力 25馬力 30馬力 40馬力 50馬力 仁川港町 電話六五三番 今星鐵工所

小資本工業案內 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目用品 製造法 案內書 京城府長沙町二九 泰昌工業所 (原料商)

平壤府水玉里 (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理想的洗顔料 明菓ミルク洗粉 살거칠방지와손질에 明治製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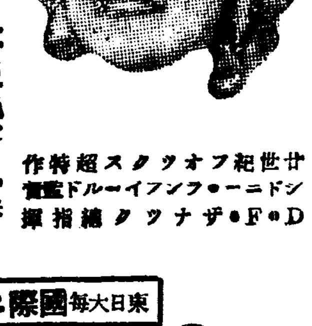


西湖支局 電話一〇五番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京城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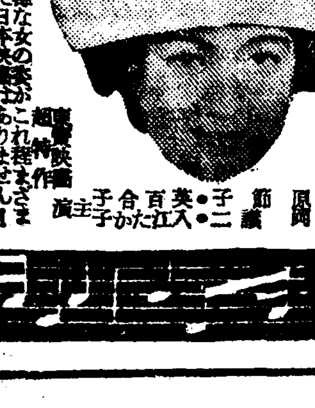
朝報案內 採用人을求함 京城昌成町六八

十四日까지



銀盤の女王 陽春第一の豪華二百萬ドル映畫 フイギユア・スケート世界選手權保持者 ソニア・ヘニー主演 ドン・アメチー 廿世紀フオツクス超特作

東日大每國際ニユース 朝日世界ニユース



後篇 母の曲 東寶

若草劇

團成社 名作音樂映畫鑑賞週間 支那事變特報 私のあなた 熊の唄 夜の鍵 愛國六人娘 電光九九五番

優美館 紫頭巾後篇 電光九五三番

昨年貿易總決算

輸出의九九一•七%는製造品

原料의輸入이增加

昨年中의 外國貿易狀況은 別項과가티 輸出入總額 七十二億七千三百萬圓 入超六億三千五百萬圓을 記錄하엿는데 그內容에잇서서 製造品輸出、原料品輸入의 趨勢가 益益顯著하게된것은 今後의 貿易統制上 자못 重要視할일이다 即 昨年中의 內地輸出總額 三十一億七千五百萬圓 輸入總額三十七億八千三百萬圓을 食料品 原料品 原料用製品 全製品에 分類하야 그總額中에占하는 比率을 보면 如左하다 (單位%)

◇輸出	十二年中	十一年中
食料品	七•八	七•六
가、粗製品	一•六	一•九
나、製造品	[illegible]	[illegible]
原料品	[illegible]	[illegible]
原料用製品	[illegible]	[illegible]
全製品	[illegible]	[illegible]
雜品	一•二	一•二
內國産計	九九•六	九九•八
再輸出品	[illegible]	[illegible]
總額	一〇〇•〇	一〇〇•〇

◇輸入	十二年中	十一年中
食料品	[illegible]	[illegible]
가、粗製品	[illegible]	[illegible]
나、製造品	一•八	[illegible]
原料品	[illegible]	[illegible]
原料用製品	[illegible]	[illegible]
全製品	[illegible]	[illegible]
雜品	〇•四	〇•五
外國産計	九九•七	九九•六
再輸入品	〇•三	〇•四
總額	一〇〇•〇	一〇〇•〇

右와如히 輸出에잇서서 全製品은 十一年의 五十八•一%로부터 五十九•八%에增加되고 原料品은 四•二%로부터 四•三%로 僅少하나마 增加되엇다 또全製品에食料品中의製造品及 半製品과를合하면 輸出總額中 實로九十一•七%에達한다

그런데 全製品乃至半製品中 輸出增加가 顯著한者는 全製品에잇서서는 絹織物、機械類、등소림、食料品、半製品에잇서서는 綿絲、人絹、絲生絲等이다。

다음 輸入에잇서서는 原料品輸入은 十一年의六十二•九%로부터 더 昨年은 五十二•七%로減少되엿스나 이는原料品製品을加하면 八十一•一%로부터 八十一•六%로增加되고 全製品輸入은 食料品中의製造品을 加하면 再昨年과增減이업다

다시 昨年에잇서서 原料品 比率이 減少하야 原料用製品이 著增한것은 纖其他原料關係에着眼한 輸入이主로 原料用製品中에 包含되어잇기때문이라고보이며 其他皮革、皮類의 輸入도增加되고、또 全製品輸入의比率이 多少增加된것은 機械類의增加가 잇기때문이다。 이와가티 輸出에잇서서 全製品及原料用製品을 包含한 加工品이 大部分을 占하고 輸入에잇서서는 原料品及 原料用製品이 産業界의 發展을示하는同時에 今後一層 强化가豫想되는 貿易統制、特히 輸入抑制가 곳輸出貿易消長에 影響을 주게되는것을示하는것이다 이미昨年秋以來 輸出의 增勢가 停頓되어 어떤商品에잇서서는 減退傾向을 示한原因의 一部는 原料手當의 不潤滑에잇다고보이며 또 今年第一旬인 一月上旬貿易은 輸入도 輸出도 다시減少되엇기때문에 結局入超額은 昨年同期보다 增加되게된것은 注目할일이다

全國入超總額

六億三千五百萬圓

大藏省發表＝昭和十二年의 內地及外地를合한 本邦對外貿易額은 輸出卅三億一千八百八十二萬六千圓 輸入卅九億五千四百六十八萬四千圓 輸出入合計七十二億七千三百五十一萬圓 差引輸入超過額六億三千五百八十五萬八千圓으로 이를前年에比하면 輸出은 五億二千百廿二萬七千圓(一割八分六厘)輸入은 十億二千七百七十萬九千圓(三割五分一厘)輸出入合計는 十五億四千七百九十三萬六千圓(二割七分)을各各增加하야 輸入超過額은 六億三千五百八十五萬八千圓을 示하엿다 前年의 一億三千卅七萬六千圓에比하야 五億五百四十八萬二千圓의 入超增加이다

(單位千圓、比率、增減、△印減)

區分	昭和十二年	前年比較	同上比率
◇輸出			
內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內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入超			
內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出入合計			
內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起債市場打開機運

殖銀、東拓도期待

金融梗塞의"癌"急速除去?

但條件逆行은不可避

短資市場이 緩慢裡에 越年한 本年新春의 金融界의 關心事는 長期金融市場의 打開如何에 잇는데 朝鮮金融界로서도 昨年春以來 長期市場의 金融梗塞에依하야 不動産金融其他 長期金融이全혀 杜絶된때문에 長期市場의打開는鶴首期待되고잇스나 昨年末以來 興銀의 長期金融市場打開積極策에 依하야 大體期待가되고 市場打診의 意味인東京電燈債一千萬圓도 近間 三分三厘파—十年程度의 條件으로成立되기에 至하얏스며 籌紡社債도 一流債의돌으로서 起債市場의 問題로되어잇는 狀態에까지 好轉되엇슴으로 殖銀 東拓과가티 長期市場에資金을 求하는側에서는 起債市場의 狀勢에深甚히考慮하고잇서 이미幾分關係業者間의 內意를打診中이다 起債條件으로서는 逆行은 免치못할것으로 殖産債分과가튼것도 四分三厘라면 昨年四分一厘債를 發行한 前例로보아 二厘의逆行은 免치못하나 市場狀勢로서 勿論할수업다하고잇슴으로 急速한起債成立에 큰期待를가지고잇다

이에 어어서 山東의 軍事工作進捗에依하야 濟南에 事務所를 去十日부터 開設하얏다 一方太原은 目下調査員을派遣하야 實情을 調査中인데 그赴任을기대려 事務所를開設할意向이오 事變中途撤廢한 青島支店은大連에와잇는 井口支店長以下各支店員도 我軍의 青島占領과同時에 目下復歸準備에着手하고잇슴으로 近間再開되리라한다 支那軍때문에 破壞된青島支店은 外形만남어잇고 內部는거의폐허가되엇다한다

◇各道別補助額

	選奬費	邑面經費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一〇〇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産金融資申請

一千萬圓突破

産金低資融通의申込受付는 上旬來東拓殖銀이모다 受理를開始하엿는데 待望의低資인만큼 申請이 殺到하야 東拓朝鮮支社는 朝鮮鑛業開發의 三百萬圓을筆頭로 東拓系各社의 約二百萬圓中外鑛業百萬圓等의 大口가殺到된 一方殖銀에서도 朝鮮製鍊을筆頭로 各地支店을通한 申請이激增되어 이미二千萬圓의 資金에對하야 過半의申請이잇다 大體의豫定으로서 四月末까지에二千萬圓을消化할豫定이엇스나이대로가면 東拓파가튼것은 二月上旬頃까지에豫定額을넘을모양이다 어 融資決定은 總督府의 審査委員會의嚴選으로 嚴活한處理가 待望된다한다

寸鐵

暫定運賃을싸게하고저 本運賃을 高率로 契約케하얏더니 海運界는反軟

○ 急을避하려다가 큰損보게된것이 米運賃協定이엇다

○ 産金資金申請은 一千萬圓을 突破했다고

○ 中小業者에게는 손이닷치안는資金이니 딴한노릇

○ 朝鮮金融梗塞의原因이된 殖銀東拓債券發行이 期待된다고

○ 新春內地의 長期債市場打開機運濃厚는 이意味에서好消息

朝鮮內金融界

越年後도緩漫

但土地와證券投機資金은

各機關이放出을嚴戒

異例的順調로推移한 越年金融에잇서서 新年度의 金融狀勢는 更히 緩漫狀況을 繼續하고잇다 朝鮮의資金의 季節的動態로보면 最高貸出은 一月末부터 二月上旬이오 例年이면 一月은米資金其他의 貸出膨脹期인데 本年은 今日逆으로 回收連續의狀況이다 米資貸出額가튼것은 總體的으로 보아 漸減趨勢를보고잇다 이것은

一、農村景氣의 好調에다가 農村地主方面의 不動産投機熱이 解消한것

一、期初의 大量買上에依하야 米資金은 米穀證券에依하야 肩代되는것

一、一般的金融機關의 警戒等이 原因이되어잇다 그러나 金融緩漫이라고하나 各機關이모다 土地와 證券投機等의 放出은 嚴戒態度를 가지고잇다

朝鮮輸出電球

統制規定制定

十一日付認可

朝鮮輸出電球製造 同業組合에서는 全日本內 電球輸出統制의 强化를 圖하는 政府의 方針에 隨從하고저 歐洲諸國及地中海沿岸諸國에 對한 電球輸出統制規程을 制定하고 이의 制定을認可申請中 總督府에서는 十一日付로써 右制定을 認可하엿다 朝鮮産電球는 昭和十年初 國際貿易品으로 登場하야 爾來그進出은 急速하엿다 昨年末에는 벌서輸出初年度의 約六倍인 三百八十萬打六十萬圓에 達하고 輸出地로 歐米諸國은 勿論 아프리카 大陸 海峽植民地 地中海 沿岸諸國等으로 逐年擴大되고 잇는터이다

北支經濟工作上

鮮銀의地位加重

北支에의 日本資本進出의路線은 現在正金과 鮮銀으로되어잇는데 今後本格化할內地資本의流出에當하야 正金은 北支의金融工作關係上으로 漸次業務縮少의 立場에잇슴으로 鮮銀의獨占으로될狀勢이오 鮮銀의今後의 北支經濟工作에 將當重要地位는 加重될것으로보인다 正金의 北支金融의立場은 爲替銀行으로서 天津에잇는 外國系銀行과 同列에잇는關係上 그政策的인 方面으로 機能發揮가 抑制되리라한다 從하야 鮮銀은 唯一의 日本系國策機關이 될것으로 今後激增할 內資流出의路線은 鮮銀에 全的依存하게되고 이에 依한 鮮銀의 收益도 큰것이 期待된다

鮮銀北支

支店網擴充

鮮銀에서는 一月一日부터 石家莊에 出張所를 開設하얏는데

勸農共濟組合

功勞者選奬費

國庫補助決定

昭和十二年度分의 小農生業資金貸付事業에 伴한 成績優良한 勸農共濟組合及 同事業의 功績者의 選奬費에 對한 國庫補助는 左와 如히 總督府에서 十二日 各各 各道에 補助指令을 發하얏다 右 優良組合及 本年事業功績者의 選奬式은 來二月十一日紀元佳節을 卜하야 全朝鮮一齊히 擧式하기로되엇다 (單位圓)

北支의鮮銀券

五千萬圓程度

北支一帶에 流通하는 鮮銀券의數量은 正確한 調査는업스나 大體五千萬圓乃至 五千五百萬圓의範圍이고 普及狀態도 大體一段落이되엇슴으로 이以上增發되지는안흘것이라고 觀測된다

電力管理法案等

遞信省四法案提案

【東京電話同盟】遞信省에서는 閣議의 承認을 得한 電力管理法案 特殊會社法案 電力事業法中改正法律案及 外價處理에 關한 法案의 四法律案을 休會後의 議會에 提案協贊을 得키로되어 目下 法制局에서 整理를 急히 하고잇다

漢城의海銀買收價

意外의僅少額

◇…貸付金의一部만讓受한것

거저 넘긴세음이라고

漢城銀行의 海東銀行買收價額은秘密에 附해잇는데 傳聞한바에依하면 林漢銀頭取의 發表로는海銀의 貸付金에서 預金을 減한差額과 店鋪料를 加算한額이라하얏스나 海銀의 貸付全額을 讓受하는것이아니오 不良貸等 整理를 要할것은 除外한것이니 二十七萬圓中에 果然얼마나 讓受하는것인지 모름으로 買收額은 意外의 少額이라한다 滿州支店開設費박게안되는 僅少한額이라할도잇다 金季洙氏가 이러한 少額으로 海銀을 讓渡한까닭은 海銀經營에 실증이난지오래더로 買收額多寡에 問題가잇서던것이아니라 한다

高周波北支進出

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 城津工場의 擴張計畫과 呼應하야 北支滿洲方面의 特殊鋼開發會社(資本金一千萬圓)新設의 計畫을進行하고잇는데 過般來社長東京支社長은 關係技術者를 帶同하고 北支에 出張하야 目下關係方面과 折衝中이라한다

江界水力에

東京電燈도參加

東拓系江界水力에 共同出資에依한 江界水力電氣(資本金五千萬圓四分一拂込)는 十五日第一回拂込金을 徵收하고 本月末創立總會를 開催할터인데 傳하는것가티 東京電力은 이에資本的參加는안코 東京電燈이十萬株(五百萬圓)을引受하야 參加키로되바 即그出資內容은 如左히 內定하얏다한다

東拓 七十萬株 三千五百萬圓

日本窒工 二十萬株 一千萬圓

東京電燈 十萬株 五百萬圓

內地炭値上

朝鮮炭不追隨?

冬期에入하야 猛烈한寒氣로內地炭은 最近需要가旺盛하야 品不足을告하고 各炭이모다 一割引上이엇스나 朝鮮炭도이에 刺戟되어 値上機運이지만 朝鮮炭은山元供給이不圓滑하고 다만貨車關係로 貯炭이豐富하고 供給不足은 免하게됨으로 當局도極力値上을 阻止키爲하야 鐵道局과折衝하고 貨車圓滑을 圖키로되엇슴으로 結局値上은 此際行치안케되리라한다

運賃引上期에

海運도리어緩和

契約의失敗表面化

朝鮮米運賃은 昨冬改訂에잇서 十一月及一月과 二月以降으로區別하야 暫定運賃을 中間에設定하고 二月以降의 本運賃을 大幅値上을 許容하게되어 十二月及一月을 低價로하고 將來에 値上을期케하는 解決을圖하엿는데 海運界의 狀況은 十一月과 十二月을 最高로하고 越年한後는 引弛하얏다 特히三十六圓引上이될 二月에는 相當한 緩和가 豫想되는 狀態인바 이輸送契約은 長期契約이되어잇는만큼 若干의 市況軟化로는 故計할수업게되어 將來의 檢討에잇서서 當面의 急을 避키爲한 昨冬의 朝鮮米運賃의 決定은 今日에及하야 그失敗가 表面化하게되엇다

漢銀常務復活

漢城銀行에서는 一月廿九日午前十時부터 同行에서 第六十五期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件을 附議한다

一、第六十五期諸決算案承認件

二、第六十五期利益金處分案議決件

三、取締役一名選任件

四、黃海道海州郡海州邑에 支店設置件

五、黃海道長淵郡長淵面에 支店設置件

取締役一名選任은 欠員中인常務取締役을選任코저하는것으로 常務에는 [illegible]支店長級에서 銓衡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京城鐵道事務所長更迭＝京城鐵道事務所長 參事石崎糟久氏는 이번에 勇退하고 參事田邊多湖氏가 後任으로任命되엇다고

今日의市勢 (十三日)

株式

保合裡에 强含

前場少堅

昨後場의 少突込後 反騰止場으로 少堅狀이된 後 今朝外電은 反弛로 不味이나 低價에는 買物이 潛在하야 寄付의 鈍狀도 漸次硬化하야 買戾의 閑散場面이나 底意는 頑强하야 結局 東新百七十一圓四○ 鐘紡二百七十七圓九로 靜中動의 商勢를 보여다

後場强含

後場은 東新百七十一圓六으로 二高寄로 始하엿스나 底意는 强含이엇다 諸株高寄後 依然保合으로終하다

靜中動의商勢

對支國策決定을圍繞한 御前會議를前後로하야 今後의情勢展開를 憂慮하야 消極態度가되어 閑散場面이된以後 市場은氣迷에陷하야 材料에鈍感한듯한 氣味로 거의膠着不動의保合을 繼續하엿스나 비록長期戰에 直面한다드라도 對支國策이 確立된今日에 內外共히 何等悲觀材料가 업스며 아직은 金融도緩慢을 繼續하고 잇스므로 採算株를中心한 買氣는 相當히强한바이서 商勢는 靜中에도 動意를含한 底意强한 場面을 보이고잇서다 勿論 아직은 强材料로서도 强材다운材料가업스므로 一氣大市勢를 展開하기는 困難할지모르나 低價買進은 順序가아닌가십다

物色買의態度

最近의商勢는 新株高、主力株鈍 [illegible]

市場所感

㊑…株價는 主力株中心으로 依然相當한 高位를占하고잇스나 ▲閑散한市場에 마치 陰險한 行動과같고 ▲底堅味는 底入한市勢의 場味와도가타야 ▲動機만보이면 爆發할듯한形勢 ▲警戒人氣는 勿論强하다 ▲그러나 警戒가强하고도 低落되지안는 底堅狀態를보고 [illegible]

㊎…今朝의 市勢는 阪仁共히 [illegible] (金剛城)

國債

押目狙로 反撥

【東京電話同盟】株式의 底堅을 보고 現實의 金融情勢觀을 兼하야 押目狙의 買氣가 勤하야 內地債는 五錢乃至十錢 反撥하고 外貨債도 佛貨十錢高、米貨는六分半乃至不變이오 五分半十錢高를 示하얏다

▲甲號五分 一〇二•五五▲一〇二•二五▲一〇二•二五 四分 一〇二•二五▲二十三年物 九八•五五▲佛貨四分 一九•七〇〇 米五分半 三六•七〇

支那公債崩壞

【倫敦十二日發同盟】支那는 外債利子支拂不能에 陷할지도모른다는 何應欽財務次長의談은 倫敦의外債市場에 多大한 衝動을 與하야 十二日 支那公債는 一齊히 四、五포인트崩落 [illegible]

期米

高寄後에 反弛

前場微波

今朝는 三十四圓丸十錢인 五丁高를寄하고 當限은一圓七十六錢인 三丁高 中限은一圓九十六錢인 五丁高로 先限은三十一圓三十九錢인 十一丁高로寄한 後 阪神九十一錢으로六節을始한後 [illegible] 十九錢으로 小弛하엿다가 結局 阪正八十四錢을보고 二十九錢에止場하다

後場反弛

後場은 三丁低로 三十一圓二十六錢에寄한後 二十九錢에 小戾되엿스나 二十一錢으로反弛하야 少押底狀이엇다

兩方의待機戰

當限은 物價高를 上表하며 물 [illegible]

正米

産地高로 强含

京城强調

反映하야 市中人氣强調로 各地期米의 保合도 高價가아니면不賣態度이여서 市價는十錢買進되어 氣味良好이엇다

仁川强調

○ 二等三一、六〇

大邱保合

本地人氣도 旭陽은 近處發表된 奧地人氣도 保合態度로 市中은 活氣를이로 場小口의 取引에 限하고 內地米價도 杜絶된 氣構으로 市價는 前價同樣의 釘着狀이엇다

釜山不動

東地는依然히實需는 적으나 發表[illegible]

木浦伸悩

買上發表豫想으로 市中은 新時氣迷되어 往來도 [illegible]

群山保合

出廻는 十一俵 [illegible]

商勢支配而已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米京城(白米三等)	[illegible]	[illegible]
正米仁川(白米三等)	[illegible]	[illegible]
正租(一斤)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新東	[illegible]	[illegible]
新鐘紡	[illegible]	[illegible]
新朝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綿絲	[illegible]	[illegible]
綿花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京城物價 (十二日)

▲白米(升、單位錢) ▲麥類 ▲肥料 ▲燃料 ▲洋灰 ▲砂糖 ▲鐵物 ▲木材 ▲染料 ▲海産物 ▲紙物 ▲人絹織物 ▲毛絲 ▲牛皮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

[illegible]

銀行券 (十二日)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鰯油粕・粉麥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吉村取引店 京城・仁川 期米・株式・證券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